

오르비클래스(<https://class.orbi.kr/>)

1타 같은 N타

Zola 생윤

첫해~작년까지의

ebs 수특 문항

주제별 모음

1. 개념 공부+기출 문제 풀이까지 끝낸 분들을 위한 용도임.
2.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진행해도 되고, 처음부터 쭉 봐도 되고, 킬러나 약점 주제 중심으로 봐도 됨. 님들이 알아서 하셈. 1번 풀고 버리면 됨.
3. Zola가 답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틀리면 우선 자신을 의심할 것. 그리고 내용 확인할 것.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은 Zola가 잘못된 것임. 그러니 반드시 이상한 것은 질문할 것. Zola는 오류가능한 존재임.
4. 자원 절약을 위해 1쪽 2면 인쇄 버전으로 설정하였음.
열공+즐공=대박!!!



■ 주제 목차 ■

Zola 생윤 1 - 개념의 모든 것		Zola(김준호) 선생님	
대단원	주제 번호	주제	백지 복습 정도
1	1-1	윤리학 구분	
	1-2	동양 윤리	
	1-3	서양 윤리	
	1-4	도덕적 추론	
	1-5	밀의 자유론	
2	2-1	죽음관	
	2-2	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2-3	성·사랑	
	2-4	가족 윤리	
3	3-1	직업 사상가	
	3-2	직업 윤리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3-4	정의 기본+아리스토텔레스	
	3-5	분배정의	
	3-6	소수자우대정책	
	3-7	교정정의	
	3-8	국가관	
	3-9	시민불복종	
4	4-1	과학기술과 윤리	
	4-2	정보윤리	
	4-3	환경윤리(서양의 자연관)	
	4-4	환경문제와 미래세대	
5	5-1	예술	
	5-2	의식주	
	5-3	다문화	
	5-4	종교	
6	6-1	소통 윤리	
	6-2	국제관계론	
	6-3	국제평화론	
	6-4	해외원조	
(넉넉하게) 최소 필요 장+a			

1-1

윤리학의 분류(수특 1강)

* 번호 보는 법

앞 숫자 : 대단원 번호임

뒤 숫자 : 자료 나가는 순서임

예 1) 2-2 → 대단원 II단원의 2번째 자료라는 의미임(1장임)

예 2) 2-3(1) → 대단원 II단원의 3번째 자료의 첫째장이라는 의미임(2장 이상임)

zola 풀이

1)[18 ebs 수특]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핵심 과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지 갈등하는 상황에서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윤리적으로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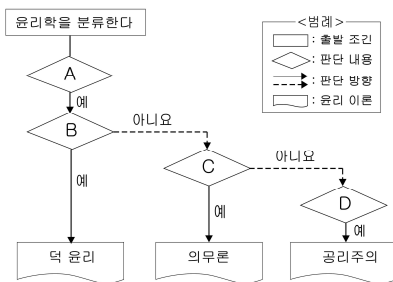
을: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윤리 이론이 필요하며, 윤리학은 이에 대한 탐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병: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안락사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때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지, 판단 논리에 모순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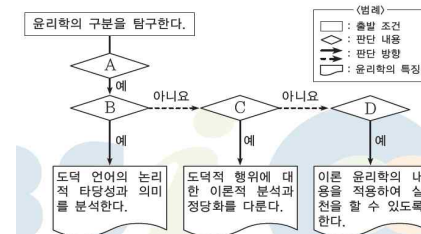
-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는다.
- ㄴ. 을은 윤리학이 사람들이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병과 달리 윤리학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당위의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 ㄹ. 병은 을과 달리 윤리학은 이론의 정립보다 현실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2)[15-6-고2] 그림의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A: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 여부를 다루는가?
- ② A: 도덕적 관습에 대한 단순한 묘사를 중시하는가?
- ③ B: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는가?
- ④ C: 도덕적 언어의 논리와 의미 분석에 치중하는가?
- ⑤ D: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위의 실천을 중시하는가?

3)[16 ebs 수특] 그림의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A: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인가?
- ② A: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규범과 원칙을 연구해야 하는가?
- ③ B: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인가?
- ④ C: 일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인가?
- ⑤ D: 현실 문제의 해결보다 도덕 원칙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가?

4)[12-11-고2]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가)	윤리학의 여러 분야가 제시하는 도덕 판단의 정당화 방법을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논쟁이 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나)	순수한 지식의 체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통해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토대를 제공한다.

<보기>

- ㄱ. (가)는 생명, 정보, 환경, 사회 정의 등의 문제를 다룬다.
- ㄴ. (나)는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규범의 탐구를 중시한다.
- ㄷ. (나)는 (가)보다 실천적 영역의 도덕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 ㄹ. (가), (나)는 모두 도덕적인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다룬다.

5)[20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갑: 우리는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을: 우리는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윤리학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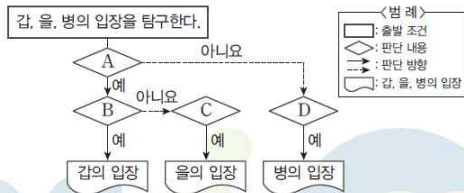
- ①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하는가?
- ② 윤리학은 행위나 행위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
- ③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개념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④ 윤리학은 경험에 근거하여 도덕적 관행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⑤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6[19 ebs 수특] 아래 두 문제를 푸시오.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갑: 윤리학은 공리주의 윤리, 의무론적 윤리와 같이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본질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정보 윤리, 환경 윤리, 생명 윤리와 같이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과 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3 갑, 을, 병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가. A: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기술보다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데 힘써야 하는가?
 나. B: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도덕 이론을 활용해야 하는가?
 다. C: 윤리학은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접 학문과 연계해야 하는가?
 라. D: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4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 방향	비판 내용
①	갑이 을에게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 과학적 탐구를 윤리학의 본질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을이 갑에게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 도덕 문제 해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이 병에게	사회 집단내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병이 갑에게	윤리학은 행위자가 지녀야 할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병이 을에게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7[19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자연 현상을 다루는 자연 과학과는 학문적 성격이 다르다. 윤리학은 존재나 사실에 기초해서 성립된 학문이 아니라 당위에 기초해 성립된 학문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 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인간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규범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 좋음' , '옳음' 과 같은 윤리학적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은 ㉠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당위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②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
 ③ 도덕적 현상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④ 특정한 사회의 도덕적 풍습이나 관습을 기술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
 ⑤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8[22 ebs 수특] 학생 답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윤리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와 같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로 성립될 수 있는 이론 탐구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환경 윤리, 사회 윤리와 같이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윤리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윤리학이 ㉠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하며, ㉡ 도덕 판단 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을은 윤리학이 ㉢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경험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이 따라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 윤리학의 과제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동양 윤리(자연관+인간관)(수특 2+11강)

zola 풀어!

9[15 ebs 수특 활용, 주관식]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나는 하늘의 의지가 인간에게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갑이라는 사상가가 “성실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실하려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라고 한 것도 나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을 사상가는 “하늘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을 사상가는 [㉡]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본다.

<보기>

- ㄱ. 인간이 가진 도덕성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
- ㄴ. 하늘이 인간과 다른 존재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 ㄷ.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 ㄹ.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인(仁)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10[20 ebs 수특]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충성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든,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온기와 존재는 다 나의 본래 몸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닦아서 명(命)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다.

- ① (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다.
- ② (가)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 ③ (나)는 인간이 하늘을 본받아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강조한다.
- ④ (나)는 자연이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는 무위(無爲)의 체계임을 주장한다.
- ⑤ (가), (나)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한다.

11[15 ebs 수특]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세 개의 갈대가 빙방에 서려고 할 때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버려도 하나는 또한 서지 못하여, 의지하여야만 서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滅)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무명(無明)으로 인해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기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 보기 >

- ㄱ. 세상 모든 존재는 각각 개별적인 실체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 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가?
- ㄷ.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가?
- ㄹ. 만물의 불변함을 깨달아 초월적 무(無)의 세계를 추구해야 하는가?

12[18 ebs 수특] (가), (나), (다)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모두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나)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다)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그러므로 천지(天地)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 ① (가)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 ② (나)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 ③ (다)는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본다.
- ④ (가), (나)는 (다)와 달리 인간이 주인 의식을 지니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13[14 ebs 수특 활용, 주관식]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1개~모두)

- (가) 큰 도(大道)가 사라지니 인의(仁義)가 생기고, 지혜가 발달하니 크나큰 허위가 생겨났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孝)와 같은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忠臣)이 나타났다.
- (나)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무한하지만,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자연환경도 황폐화되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

<보기>

- ㄱ.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ㄴ. 자연에 도덕적 원리가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 ㄷ. 자연을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질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
- ㄹ.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임을 알아야 한다.

14[22 ebs 수특]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道)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물건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귀하고 남은 천한 것이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고 천한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 주는 것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에 비하여 크다는 입장에서 말하면 만물에는 크지 않은 것이 없게 되며, 그것에 비하여 작다는 입장에서 보면 만물에는 작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보기]

- ㄱ. 선악이나 시비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인가?
- 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ㄷ. 제도와 규범이 무너져서 사회가 혼란한 것인가?
- ㄹ. 성인이 되기 위해 분별적 지혜를 지녀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5)[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가) 갑: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본성을 버리고 각기 제 마음만을 따르며 서로의 마음속을 엿보다 천하를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뒤에 문화 따위 장식을 달고 학문 같은 박식(博識)을 덧붙였으나 그런 장식은 소박한 본질을 잃게 하고 박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예: 판단 내용
 아니오: 판단 방향
 갑의 입장: 사상가의 입장

보기
 ㄱ. A: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ㄴ. B: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가?
 ㄷ. B: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ㄹ. C: 도(道)와 일치되는 삶을 통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22 ebs 수특] 어떻게 푸는지 알지? 골라!

(가) 갑: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도 있다. 율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것이 있고, 그릇된 것으로 말미암아 율음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자연(自然)에 비추어 생각한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야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ㄱ. A: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되찾아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
 ㄴ. B: 현재의 도덕적 삶이 내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ㄷ. B: 생명에 대한 차별 의식과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ㄹ. C: 연기(緣起)를 깨달아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7)[22 ebs 수특]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을 텅 비우게 하고, 그들의 배를 채워 주며,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들의 뼈대를 강하게 한다. 백성을 지식도 없고 욕망도 없게 하며, 지식을 가진 자들이 설치지 못하게 한다. 무위의 정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
 (나) 천하를 얻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백성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은 셈이다. 백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축적해 주고, 싫어하는 바를 그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인(仁)을 좋아하면 재후들이 그를 위하여 민심을 몰아다 줄 것이다.

- ① 통치자는 백성에게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인위적인 제도와 덕목이 사회 혼란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 ③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④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⑤ 무위(無爲)의 다스림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한다.

18)[21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은 하늘의 도(道)를 본받아, 다른 인간과 존재를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인(仁)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인간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례〉
 ○○지역 △△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A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을 대규모로 깎아 내고 거대한 오락 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① (가): 인간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② (가): 인간은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③ (나):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무질서의 체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④ (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⑤ (가), (나):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1-3

서양 윤리의 접근(수특 2강)

19)[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갑: 쾌락과 고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력성,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이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그것을 낳는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산성과 순수성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범위, 즉 쾌락과 고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쾌락을 주는 행위는 선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한가?	예	예
②	도덕적 행위의 실천과 사회적 행복의 실현은 양립 가능한가?	예	아니요
③	행위를 평가할 때는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④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예
⑤	쾌락을 계산할 때는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20)[19 ebs 수특, 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균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쾌락과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며,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을: 우리의 규칙은功利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즉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규칙의 준수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그 규칙의 옳고 그름은 그것의 준수가 궁극적인 목적을 증진시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병: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보기
- ㄱ. 갑은 병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ㄴ. 을은 갑과 달리 개별 행위의 유용성보다 규칙의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ㄷ. 병은 갑과 달리 모든 인간을 본래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 ㄹ. 갑, 을, 병은功利성에 근거해 도덕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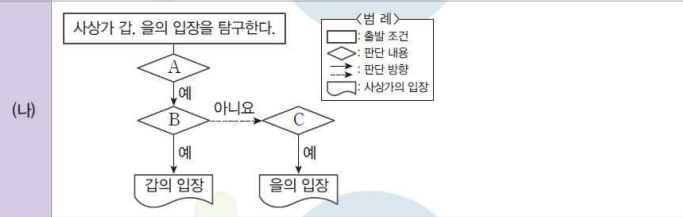
21)[19 ebs 수특, 객관식 같은 주관식] 학생 골라.

-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지 인간만이 생명을 위하여, 즉 그들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예외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덕 철학은 미래의 공포보다는 희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
현대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		✓		✓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존재는 책임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		✓	✓	
인류의 존속을 위해 현대사는 미래 세대에 대해 비호해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	✓	✓		

22)[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도덕적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즉 도덕적 개인은 무조건 규칙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훌륭한 개인,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을: 지성, 기지, 판단력, 그리고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행하지 못하면 악하거나 해로운 수도 있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일 자체로 선택한다.



- ① A: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가?
- ② B: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인가?
- ③ B: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어야 하는가?
- ④ C: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 ⑤ C: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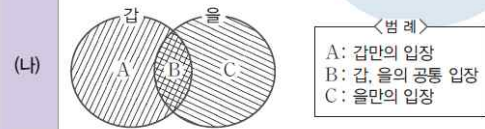
23)[19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은 상호 무관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여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는 그들이 이 두 가지 입장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권리와 책임의 화합을 추구할 때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도덕적 원리는 경쟁하는 주장들 간, 곧 나와 나, 당신과 제3자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원리이다. 주장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의 원리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리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책임보다 개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② 어떠한 갈등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도덕 문제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행동해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개인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이성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⑤ 남성 중심적 정의 윤리와 여성 중심적 배려 윤리가 조화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4)[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가) 갑: 인간의 선택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즉 목적 자체의 인정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한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을: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단순히 이런저런 의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자신에게 하는 행위든, 다른 이성적인 존재에게 하는 행위든 모든 행위에서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생각되어야 한다.



【 보기 】
 ㄱ. A: 자연과 인간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ㄴ. B: 인간이 따라야 할 정언 명법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ㄷ. B: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ㄹ. C: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예견해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한다.

25)[18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적 행위란 종(種)이 진화하는 동안 인간이 따르는 법칙에 대한 적응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반성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은 당위의 자연사(自然史)가 아닌 존재의 자연사만을 보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당위로서의 도덕규범도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는 없습니다.

갑 을 1 2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협동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 스스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도덕은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된 경험적 사실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당신의 주장은 고 생각합니다.

갑 을 3 4

- ① 도덕규범은 진화로부터 파생된 산물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의 근원이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이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의 근거가 인간 종의 발생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인간의 생물학적 기원이 도덕의 합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6)[22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비록 충분히 신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에서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창조물에서 사람들이 의욕하고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낱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오로지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은 곧 그의 자유의 자율의 힘에 의해,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이다.
 을: 인간은 누구나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누군가의 이득이거나 딸이고, 어떤 도시의 시민이며, 어떤 민족의 일원이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의 주어진 바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①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하는가?
- ② 행위 결과의 유용성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가?
- ③ 공적 영역에서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 원리로 적용해야 하는가?
- ④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결과가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⑤ 오직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27)[20 ebs 수특]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윤리학은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신경 과학 분야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약물을 통해 도덕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나) 윤리학은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이다. 인간은 자기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 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 행위를 한다.

- ① (가)는 뇌를 활용한 영상을 확인하여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는 도덕적 행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 ④ (나)는 과학이 도덕성 형성 과정이 아닌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윤리적 행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이 있다고 본다.

28)[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가령 모든 동물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갈망한다.
-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인간은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과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기

- ㄱ.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법이 있다.
- ㄴ.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ㄷ. 도덕규범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
- ㄹ.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29)[21 ebs 수특]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의식은 신체와 엄격히 구별되는 정신이 아니라 뇌를 비롯한 신체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마음은 더 이상 신체와 독립적인 정신의 순수한 산물이 아니며, 도덕적 동기와 책임은 뇌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성립한다.
- (나) 도덕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에서 기인하고, 도덕적 판단은 규범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선천적 성향이며, 선천적 성향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 ① (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별개이며, 도덕적 행위는 정신의 산물이다.
- ② (가): 도덕 판단 과정을 과학적 측정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나):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다.
- ④ (나):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자연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⑤ (가), (나): 인간은 감정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인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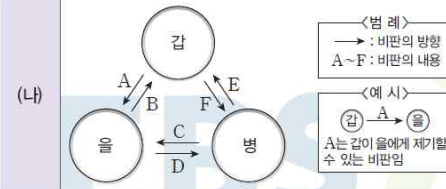
30)[21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 ① 용기, 결단성과 같은 기질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인가?
- ② 행복 그 자체를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인가?
- ④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⑤ 지성과 같은 정신적 재능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가?

31)[22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용~

(가) 갑: 선의 추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전통에 의해 규정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은 관행에 내재된 선택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선에도 타당하다.
 을: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여 차가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고통 쪽이 남는다면 일반적으로 그른 것이다.
 병: 도덕 법칙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이 될 수 있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는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즉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보기

- ㄱ. A: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ㄴ. B, D: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 ㄷ. C, E: 도덕적 행위는 자연적 감정이 아닌 선의지를 따르는 것임을 간과한다.
- ㄹ. F: 보편타당한 원리보다 구체적 맥락에 따라서 행위 해야 함을 간과한다.

32)[22 ebs 수특, 주관식]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모두 고르세요~

-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게 독립과 친밀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서 서로 다른 삶의 진리를 강조하게 된다. 남성은 자아를 규정짓고 그 힘을 부여하는 독립을 강조하고, 여성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강조한다.
- 여성들이 도덕 문제를 구성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은 책임과 배려의 개념이 핵심적이라는 것, 여성들의 사고에서는 자아관과 도덕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의 관점을 포함하는 더욱 확장된 발달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기

- ㄱ. 남녀가 추구하는 도덕적 지향성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ㄴ. 인간관계를 고려하고 맥락적으로 사고하는 도덕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ㄷ.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를 성적 차별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하는가?
- ㄹ. 감정이 배제된 도덕 판단일수록 도덕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보아야 하는가?

33)[22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다시 공포와 전율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움의 느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의무이다. 현대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감안할 때 미래 인류가 맞이하게 될 가능한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한발 물러서야 하며,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았다면 가지게 될 두려움으로부터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 또한 지구 전체의 운영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소비 습관으로서 겸손함을 부르짖어야 하며, 현대 기술의 능력 내지 권력에 대한 맹신을 지양하고 한계를 지키려는 절제를 실현해야 한다.

- ① 미래에 대한 지식은 책임 윤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② 기술이 인간에게 끼친 손해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 ③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삶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현대대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 ④ 겸손함은 개인의 생활 태도에 불과하므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 ⑤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공포보다 기술로 인한 삶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34)[21 ebs 수특] 답은?

(가) 갑: 우리의 목적은 자연 과학의 대상인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다.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다. 이 물은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된다.

(나) 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물력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과학 기술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B: 과학 기술을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인가?
- ③ B: 과학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④ C: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미래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약화되는가?
- ⑤ C: 과학 기술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생태학적 정인 명령에 위배되는 것인가?

1-5

밀의 자유론(수특 여기 저기)

- ▶ Zola Guide 밀의 자유론은 토론, 국가와 윤리, 정보 사회, 소용 윤리에서도 다루어짐.
- * 1-4는 생략함.

zola 풀어!!

35[15-6-13]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할 경우 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나) 소수의 다양한 의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

- 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야 진리가 된다.
- ②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
- ③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 ④ 자유로운 논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 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다.

36[16-6-15]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1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리의 관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진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2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 소수 의견이 옳을 경우 인류는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p> 
<p>3 하지만 그 소수 의견이 옳지 않다면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요?</p> 	<p>4 설명 그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인류는 ㉠</p> 

- ①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 ②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 ③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마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 ④ 다수에 의해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 ⑤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37[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1 선생님께서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2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간에 최소화되어야 합니다.</p> 
<p>3 그렇다면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 인가요?</p> 	<p>4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때뿐입니다.</p> 

- ① 국가는 개인의 독립성에 대해 최소한으로만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악 금지의 원칙을 따를 때만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 ③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가 정당하다고 본다.
- ④ 개인의 행동이 본인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가는 그 행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사회적으로 다수의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인에게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본다.

38[22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담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 원칙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누군가의 자유에 간섭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간섭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방어뿐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가 주권자인가?
- ② 국가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의 성장을 증시해야 하는가?
- ③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 ④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는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39)[21 ebs 수특]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의견을 폐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여전히 옳지 못하다.

- ① 자신과는 다른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②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 ③ 다수의 생각을 소수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④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 ⑤ 절대적 진리 도출을 위해 잘못된 견해는 폐기해야 하는가?

2-1

삶과 죽음의 윤리(수특 3강)

zola 풀이!

40)[ebs 탐스런] 서양 사상가인 갑의 입장에서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된다.

을 : 죽음에는 어떤 윤리적 의미가 있습니까?

갑 : _____ (가) _____

- ① 다른 세상으로 윤회하는 시작이 된다네.
- ②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된다네.
- ③ 인간 사회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조건이 된다네.
- ④ 도덕적 주체로서 한 인간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네.
- ⑤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네.

41)[19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다 골라!

(가)	<p>갑: 현자(賢者)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그에게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삶의 부재가 해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향유하기를 원한다.</p> <p>을: 생명이 와서 태어나는 것을 물리칠 수 없듯이, 그것이 떠나가 죽음을 맞는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체만을 길러 생명을 오래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슬픈 일이 아닌가? 세상의 일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하면 생명이 되살아난다. 생명이 되살아나면 참된 생명이 실현된다.</p>
(나)	

보기

- ㄱ. A: 죽음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자연적 과정이다.
- ㄴ. B: 죽음에 대한 실존적 자각을 통해 사회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 ㄷ. B: 죽음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ㄹ. C: 죽음이 모든 존재의 원리인 도(道)에 근거함을 깨달아야 한다.

42)[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죽음은 현존재에게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다른 가능성들에 의해 능가될 수 없고,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 죽음과 관련해 '비본래적'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세상 사람(평균인)들의 일반적 기준을 자신의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지만, '본래적' 존재로서 실존은 죽음을 자신에게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면서 자신이 그동안 집착했던 일상적인 가능성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자각한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죽음으로의 선구(先驅)'를 한다. 즉 죽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인수하면서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선택한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지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		✓	
현존재는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물음 줄 일어야 한다.			✓	✓	✓
현존재는 죽음 이후 영혼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	✓
현존재는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회피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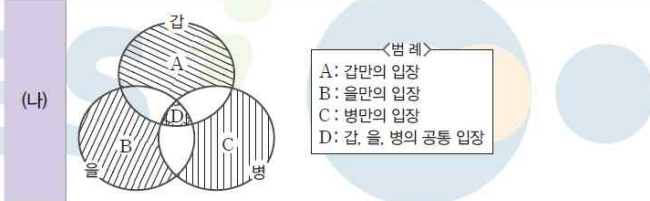
43)[20 ebs 수특]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인간은 사라질 육체에 갇혀 지내는 동안은 이데아에 관한 앎, 즉 참된 지혜를 얻기 어렵다. 인간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영혼을 정화하는 일이라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정화될 필요 없이 순수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 (나) 인간은 오온(五蘊)의 집합에 불과하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라는 것도 이 다섯 가지가 모인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인간 생명 형성되며 이 요소들이 흩어질 때 생명이 다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인간은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 ① (가)는 죽음을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② (나)는 인간이 죽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의 하나로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44)[20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A~D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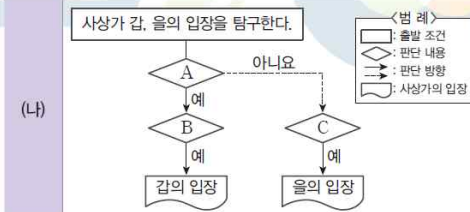
(가) 갑: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 보는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의 고유한 죽음으로 달려가 보는 것은 현존재의 존엄한 과제이다.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병: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혼만을 사용하여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



- ① A: 죽음 이후에는 모든 영혼의 활동이 정지된다.
- ② B: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C: 죽음 이후에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D: 죽음 이후에도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
- ⑤ D: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45)[21 ebs 수특, 주관식] 어떻게 푸는지 알지?

(가) 갑: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를 떠나야 한다.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들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한다. 반면 현자는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한다.



- 보기
- 가. A: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가?
 - 나. B: 죽음 이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가?
 - 다. B: 죽음은 소멸하는 육체와 불멸하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가?
 - 르. C: 죽음은 원자가 해제되는 것으로 감각이 소멸함을 의미하는가?

46)[22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몸은 감각 능력을 스스로 가진 적이 없으며, 몸과 함께 태어난 영혼이 몸에게 감각 능력을 주었다. 영혼이 몸 안에 있는 한 결코 감각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영혼의 본성을 산출하는 원자들이 전부 없어진다면, 몸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 남아 있더라도 감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만약 죽음과 같이 몸 전체가 분해된다면, 영혼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운동을 할 수도 없게 되어서 감각을 잃게 된다.

을: 괴로움은 모두 고통을 조건으로 생겨난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고통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린다면 더 이상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이다. 게으르지 않고 올바르게 이 두 가지 원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과(果報)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깨닫거나, 천상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 ① 갑: 죽음 이후에 영혼은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리를 인식한다.
- ② 갑: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 ③ 을: 현생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 을: 업이 소멸되어도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⑤ 갑, 을: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

47)[22 ebs 수특, 주관식, 바나나 저격용] 골라!

죽음은 현존재에게 던져진 '끝'으로서 현존재의 가장 자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확실한 것이며,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다. 죽음의 불안에 의해 비본래적이고 퇴폐적이고 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기를 자각하고 본래의 자기로 귀환할 수 있다.

보기

ㄱ.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 주는 공포의 대상에 불과한가?
 ㄴ.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이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가?
 ㄷ.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이 자신의 것임을 인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ㄹ.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 현존재는 생명의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2

삶과 죽음의 실천 윤리(수특 3강)+생명과학과 윤리(수특 4강)

zola 풀어!!

48)[19 ebs 수특]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환자를 자식처럼 온정적으로 대우해 왔던 의사의 부권주의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원칙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이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라는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의료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의사에게 더욱 더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환자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해당 의료 행위를 허락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ㄱ.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ㄴ. 환자는 자신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하는가?
 ㄷ.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은 부권주의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인가?
 ㄹ. 환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자율적 결정권을 갖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Zola Guide 부권주의라는 용어는 윤리나 사회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임. 생윤에서도 중요 사상가들의 글이나 쟁점형에서 사용되니 알아둘 것.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배와 보호의 특질을 가진 사회관계. 기업에서의 온정주의적 관리 따위가 그 예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1030&cid=42121&categoryId=42121>

49)[19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부모의 자연적 욕망이 자식의 행복 증진이라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우생학적 강화 시도는 허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된다.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삶을 선택할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지 않듯이, 우생학적 강화는 부모가 단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을: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거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우생학적 강화는 자녀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훼손한다. 즉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사람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체라 하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은 세대 간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성을 파괴한다. 삶의 시작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적 우연성이야말로 자유와 주체의 전제 조건이다.

- ① 갑은 자녀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부모의 자연적 욕망 충족을 도덕적 의무로 본다.
- ② 을은 부모에 의한 우생학적 강화는 부모와 자녀 간 평등한 상호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온전한 주체로서의 삶이 오직 우생학적 강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우생학적 강화가 자신의 삶을 기획할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 ⑤ 갑은 생식과 관련해 부모의 결정권이, 을은 자연적 우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50[16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 중 하나를 기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하나뿐인 심장을 기증하려고 한다면,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또 거부해야 한다. 어머니의 결정이 충분한 설명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며, 도덕적인 타월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생명의 희생과 같은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가 필요하다.

- ① 장기 기증 행위는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태도
- ② 혈연적으로 관계 없는 장기의 기증만 허용하는 제도
- ③ 장기 기증자의 자율적 의지를 언제나 존중하는 태도
- ④ 장기 기증 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 ⑤ 장기 기증자를 선택하고 수용하는 공적인 기준과 감독

51[17 ebs 수특]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생명 과학 연구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고 할 때, 생명 과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걸까요?

-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약행 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육체적 해악이나 정신적 상처를 주면 안 된다.
- 선행의 원칙: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소극적 명제를 넘어 타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적극적 명제를 따라야 한다.
- 정의의 원칙: 행위에 따르는 이익과 해악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보기

- ㄱ. 갑: 연구는 피험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 ㄴ. 을: 연구 결과의 성과보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ㄷ. 병: 연구 시작 전에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ㄹ. 정: 연구 과정의 정보를 제한하여 연구 대상자의 두려움을 줄여야 합니다.

52[17-10교-9]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일부 조항이다. 이 조항들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9조 <1>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 <1>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의료인들 간에 환자의 정보를 가능한 한 공유해야 한다.
- ② 의료인은 낙태를 위한 성 감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③ 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④ 의료인은 임부에게 태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 의료인은 임부의 알 권리를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시해야 한다.

53[21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에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습니다. 유전 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유전자 치료이므로 두 가지 치료 방법을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p>	<p>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야 하지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인간 생체체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개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유전자 개입 없이 태어난 사람과의 차이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p>
<p>1 갑 을</p>	<p>2 갑 을</p>
<p>체세포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유전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p>	<p>그렇다면 당신은 '㉠' (리)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p>
<p>3 갑 을</p>	<p>4 갑 을</p>

- ① 출생 이전의 생명체는 타인의 의지를 따라야 하는 존재이다.
-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개입은 효용성을 위해 제한하면 안 된다.
- ③ 후세대의 유전자에 영향이 없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야 한다.
- ④ 유전학적 개입으로 태어날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 ⑤ 유전적 개입 여부는 개인의 자아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54[13 ebs 수완 활용, 주관식]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성교가 없다는 점과 자의적으로 생식을 조작한다는 점에서 체외 수정이나 인간 복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체외 수정이 허용되듯이 인간 복제도 허용해야 해. 그리고 인간 복제술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을 입히지 않는다면, 인간은 인간 복제술을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어.

을: 할~ 너의 주장에 따라 생식용 인간 복제를 허용하면 [㉠]는 문제점이 있어.

- ① 인간의 생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② 인간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 ③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양쪽 부모를 가질 수 있는 아기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복제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 ⑥ 인간 생명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 ⑦ 인간 종의 유전적 개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 ⑧ 줄기세포 추출 후 배아를 폐기해야 한다
- ⑨ 배아도 인간 생명임을 간과한다

55)[22 ebs 수특]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가 인간 존엄성 보호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선택한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방법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인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한다면, 자신의 죽음 자체 뿐만 아니라 죽음의 방법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연명 치료 중단으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과 달리, 약물을 주사하는 등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 ①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안락사의 방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③ 불치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④ 안락사는 당사자인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 실시되어야 하는가?
- ⑤ 모든 안락사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가?

2-3

성·사랑의 윤리(수특 5강)

zola 문제

56)[18 ebs 수특]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로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은 유쾌한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이 경험은 성적 매력에 의해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권태감으로 인해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으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① 사랑의 본질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 ② 사랑은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 ④ 사랑은 나에게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타자를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하다.
- ⑤ 사랑의 실패 원인을 알고 그 의미를 배울 때 사랑의 실패 극복이 가능하다.

57)[16 ebs 수특 응용, 주관식] (가)의 입장을 토대로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느끼는 일체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그를 나에게 필요한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다.

(나) 

- ① 상대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 ②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이지.
- ③ 상대와 자기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는 것이지.
- ④ 상대를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것이지.
- ⑤ 상대의 성장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지.

58)[17 ebs 수특 응용] 서양 사상이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 배려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 상황>

A는 최근 여자 친구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매일 50건 이상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zola 보내고 있다. 여자 친구는 A에게 그만둘 것으로 zola 부탁했지만, A는 여자 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행동을 zola 계속하려 한다.

<보기>

- ㄱ.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라.
- ㄴ. 좋아하는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라.
- ㄷ. 좋아하는 사람의 고유한 삶의 영역을 존중하라.
- ㄹ.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 ㅁ. 감방 zola 가라!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⑥ ㅁ

59)[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타인에게 베푸는 것 또는 주는 것으로써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기본 요소가 발휘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사랑의 기본 요소들은 서로 개념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랑만이 인간 존재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는 올바른 길이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보기

- ㄱ. 사랑은 어머니와 태아와 같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 ㄴ.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가는 합일의 과정이다.
- ㄷ. 사랑의 대상을 존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ㄹ.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60)[22 ebs 수특] 문제 푸는 방식 알죠? 적절한 것은?

<p>1</p> <p>요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성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p> 	<p>2</p> <p>남성에 의한 여성의 예측은 여성 개인에 대한 불공평 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p> 
<p>3</p> <p>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인류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p> 	<p>4</p> <p>여성의 재능 활용 기회를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사회적 유용성이 증진됩니다.</p> 

- ①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이다.
- ② 교육의 기회는 남녀의 본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 ③ 양성평등의 실현은 인류 전체의 유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④ 여성은 생물학적인 이유로 남성보다 분별력이 열등할 수밖에 없다.
- ⑤ 여성은 남성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제도적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61)[22 ebs 수특] 적절한 것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 감상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인격을 발달시키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랑이 기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수동적 복종이나 생물학적인 합일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며, 인간이 타인과 분리되는 벽을 허물어 버리고 타인과 결합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따로 남는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① 사랑하는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② 상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 ③ 사랑은 상대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의 독립성을 버리는 것이다.
- ④ 사랑은 능동적으로 상대를 통제하여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 ⑤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위한 선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

62][20 ebs 수특, 주관식] 고르셈.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이것들은 성숙한 인간, 곧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휘하고 스스로 일한 결과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지전능이라는 자아도취적 꿈을 포기하고 오직 순수한 생산적 활동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내적 힘에 바탕을 둔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보기

- ㄱ.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인가?
- ㄴ. 사랑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능동적 활동인가?
- ㄷ. 사랑의 자발성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희생으로 완성되는가?
- ㄹ.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인가?

63][20 ebs 수특]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가)	<p>갑: 성의 고유한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며, 사랑은 타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p> <p>을: 성의 목적은 정당한 혼인을 통하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이다. 출산에 기여하는 성만이 성의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법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① A: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 ② A: 성적 관계의 주된 목적은 생식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 ③ B: 오직 쾌락만을 위한 성은 비도덕적이다.
- ④ C: 성을 결혼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
- ⑤ C: 성적 관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다.

2-4

결혼과 가족의 윤리(수특 5강)

☞ Zola Guide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통 윤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다. 학습이 소홀해지면 틀리기 쉽다.

zola 문제

64][18 ebs 수특]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은/는 두 성(性)이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겨 제사의 주인이 되며,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계승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군자는 이를 중히 여겨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다.
- ① 부모와 사회의 인정을 받아서 한 가정을 꾸리는 의식이다.
 - ② 이해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해 서로 함께하겠다는 서약이다.
 - ③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 ④ 두 가문의 남녀가 결합하여 상호 헌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식이다.
 - ⑤ 위로는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낳아 가계를 잇겠다는 서약이다.

65][16 ebs 수특]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은/는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의미는 대체로 인간다움[仁者人也]을 의미하거나 사랑의 정신[愛人也]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조건적이며 구별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어서 오직 [㉠]의 정신을 온전히 체득한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기>

- ㄱ. 부모의 뜻을 헤아려 무조건 복종하고 실천할 때 완성된다.
- ㄴ. ㉠은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예(禮)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 ㄷ. ㉠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덕목으로는 효(孝)가 있다.
- ㄹ. 형제자매와 친구, 친족 사이에도 존재해야 할 당위 규범을 말한다.

66][19 ebs 수특]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 “선생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서경에서 말하기를 ‘효일지니!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며,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정치에 확산시켜 나가라.’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정치인데 어찌 정치에 실제로 종사해야만 곧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소.”

보기

- ㄱ. 가족 간의 친애를 버려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 ㄴ. 가족을 다스리는 원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 ㄷ. 가족과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수양을 해야 한다.
- ㄹ. 가족 공동체처럼 국가 공동체도 도덕을 바탕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67)[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세요~

- (가)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는다. 움직임이 극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에서 음이 생성된다. 고요함 이 극에 이르면 다시 움직임이 시작된다.
- (나) 남녀 간에 분별이 있는 다음, ㉠ 간에 의리가 있고 ㉡ 간에 의리가 있는 다음,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고,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는 다음, 군신 간의 바른 도리가 있게 된다.

보기

- ㄱ. 동기간으로 서로 사양하며 지내고 공경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혈연적 관계로 가족 공동체와 신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 ㄷ.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ㄹ.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백년해로를 지향해야 하는 관계이다.

68)[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세요~

○○에게

네가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 옛 선현에 의하면 ㉠ 은/는 부모님께서 남겨 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것이라 했단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간격이 있게 보아서는 안 되며, 음식이나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똑같이 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 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나? ...(후략)

보기

- ㄱ. 서로 위계를 지키며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형우제공과 효를 함께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ㄷ. 인륜의 시작으로 상부상조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 ㄹ. 혈연적 관계로 친밀함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이다.

69)[22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며,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다우며,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우며 가정의 법도가 바르게 될 것이니, 가정을 바르게 하면 천하가 안정된다.
- ㉠ 은/는 인륜(人倫)의 시작이므로 지극히 친밀한 사이지만 지극히 조심해야 할 관계이기도 하다.
- ㉡ 은/는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수족(手足)의 관계이다.

보기

- ㄱ. ㉠은 혈연관계로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다.
- ㄴ. ㉡은 부모에 대한 효(孝)를 함께 실천해야 하는 동기간이다.
- ㄷ. ㉠은 ㉡과 달리 서로에 대한 정조(貞操)를 지켜야 하는 동반자이다.
- ㄹ. ㉠은 ㉡과 달리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다.

70)[22 ebs 수특, 주관식] 다 골라 주세요~

○○에게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가 무너진 것 같아 너무 염려스럽네. 요즘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보면 흔히 공경보다도 사랑의 정이 지나치게 드러나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지나친 친밀함은 서로의 잘못을 보기 힘들게 만들고, 잘못된 행동으로 흐르기도 쉬우며, 잘못된 행동을 보더라도 덮어 두기 쉽다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각자의 도리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네. 만약 부모의 뜻이 올바른 도리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자식은 그 뜻을 받들고 따르되 털끝만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네. 하지만 그중에 올바른 도리를 해치는 것이 있다면 자식은 온화한 기색과 기쁜 얼굴빛을 지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 드리되 거듭 사실을 설명하여 반드시 들어주시도록 해야 하네.

보기

- ㄱ. 부모와 자식은 예로써 대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부모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간언할 수 있다.
- ㄷ. 부모는 자연적 애착을 바탕으로 자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
- ㄹ. 부모와 자식은 혈연관계이므로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71)[12년 6월 고2+14 ebs 수특] ㉠, ㉡에 들어갈 개념과 그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골라. ()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는 사랑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강조되며, 부자유친(父子有親)의 윤리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자애와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온전히 이루어진다.

- ① ㉠: 충(忠) - 매사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자세이다.
- ② ㉡: 효(孝) -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정의로운 마음이다.
- ③ ㉠: 신(信) -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마음이다.
- ④ ㉡: 지(智) - 잘잘못을 가리려는 분별 의식이다.
- ⑤ ㉡: 인(仁) - 본래 타고난 내면적인 도덕성이다.

72)[14 ebs 수특] (가), (나)에서 강조하는 효의 실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가) 오늘날 효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잘 봉양함을 말하나 개나 말을 보더라도 모두 그 어미에게 그럴 수 있으니, 공경함이 없으면 어찌 동물과 구별할 수 있겠느냐?

(나)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큰 것은 어버이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은 부모의 의식주 생활에 걱정과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다.

- ① (가) : 부모님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거야!
- ② (가) : 부모님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잘 모셔라!
- ③ (나) : 가장 먼저 지위를 얻어 이름을 떨쳐라!
- ④ (나) : 부모의 뜻을 헤아려 부모를 기쁘게 해 드러라!
- ⑤ (가), (나) :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해라!

3-1

직업과 청렴의 윤리(수특 6강)

zola 문제

73)[20 ebs 수특] 올바른 학생을 골라!

-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勞心]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힘을 수고롭게[勞力]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사는 것이 천하의 보편적인 원리이다.
- 고정적인 생업[恒産]이 없으면서도 항상적인 마음[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진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입장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몸의 힘을 쓰는 일에 능해야 한다.	√	√		√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	√	√
경제적 안정은 백성들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		√		√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	√

74)[20 ebs 수특,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 갑: 군자는 작은 일은 잘 못해도 큰일은 맡아 할 수 있고, 소인은 큰일은 감당 못해도 작은 일은 잘할 수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을: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뽑아 쓰고, 덕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 힘든 일은 누구나 싫어하고 이익은 누구나 좋아하므로 예로써 일을 나누어야 다툼이 없을 것이다.

- 보기
- ㄱ. 주어진 사회적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ㄴ.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 ㄷ. 개인의 덕에 따른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ㄹ. 군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통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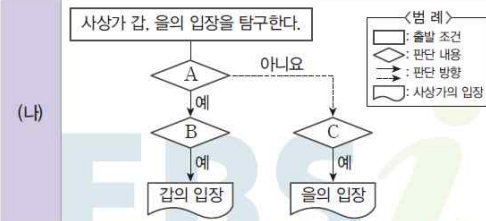
75)[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은 서양 사상가들과의 가상 인터뷰이다.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골라.

- 사회자: 우리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일과 직업 생활을 하며 보냅니다. 우리는 일과 직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 갑: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온전한 삶이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삶이다. 인간은 여가를 얻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신과 인생에 대해 관조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육체노동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명상과 신을 향한 기도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을: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셨으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신께서 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보기
- ㄱ. 갑: 세속적인 일의 유일한 기능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ㄴ. 을: 근면 성실한 직업 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 ㄷ. 을: 일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 ㄹ. 갑, 을: 육체노동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76)[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세요.

- (가) 갑: 수호자는 마치 야영하는 군인들처럼 공동으로 식사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안의 신성한 금은 인간의 소유물과 섞음으로써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세상의 금은 멀리함으로써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원하게 된다.
- 을: 목민관은 술과 여색을 끊고, 노랫소리와 음악을 물리치며, 공손하고 단정하고 엄숙하기를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해야 한다. 감히 놀고 즐기는 것으로써 다스림을 거칠고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목민관의 본연의 의무는 청렴이다.



- 보기
- ㄱ. A: 각자의 사회적 역할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가?
 - ㄴ. A: 국가 운영을 맡은 자에게 재산 소유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 ㄷ. B: 수호자와 생산자는 국가 통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 ㄹ. C: 공직자가 자아를 기 위해서 반드시 청렴하고 절약해야 하는가?

77)[22 ebs 수특] 적절한 것은?

(가) 갑: 농부는 밭일에, 상인은 장사에, 목수는 그릇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수장은 될 수 없다. 오직 예에 정통한 사람만이 수장이 될 수 있다.
 을: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을 구분함으로써 사람이 각자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주었다. 신은 그런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하였다.
 병: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나)

- ① A: 노동은 신성하며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D: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직업의 목적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④ E: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백성은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78)[17 ebs 수특, 주관식]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수호자들에게서 변변찮은 자손이 생길 경우 다른 사람들 사이로 보내져야 하고 다른 집단에게서 우수한 자손이 생길 경우 수호자들 사이로 보내져야 한다. 이것이 의도한 바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각자가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이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고,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이 아닌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을: 분업을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각자 독립적으로 혼자 일한다면 틀림없이 하루에 20개의 핀은커녕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 (중략)... 사회가 미개한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작업인 것이 진보된 상태에서는 여러 사람의 작업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량된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농부는 농부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고,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닌 것이 통례이다.
 병: 노동이 분화되자 각 개인은 하나의 일정한 배타적 영역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사냥꾼, 한 사람의 양치기, 한 사람의 어부, 한 사람의 비평가이며, 생계 수단을 잃지 않고자 하는 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아무도 배타적 영역을 갖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스스로를 도야시킬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밤에는 비판을 할 수 있다.

- 보기
- ㄱ. 갑은 각자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생산 과정에서의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 ㄷ. 병은 사회 통합을 위해 각자는 하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병과 달리 분업의 원리를 따라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

79)[19 ebs 수특] 여러 바나나들 속에 인간이 1명 숨어 있음. 찾으셈!

노동은 상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상품을 생산하는 관계 속에서 노동은 그 자체와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한다. 이런 사실은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이, 곧 노동의 산물이 낫선 존재로서, 생산자와 무관한 권력으로서 노동과 맞선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의 생산물은 하나의 대상 속에 고정된, 사물화된 노동인 바, 이는 노동의 대상화이다. 노동의 이러한 현실화는 국민 경제학적 상태에서는 현실성의 박탈로, 대상화는 대상의 상실과 대상에 대한 예측으로 나타난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노동 부문이 진행될수록 노동자의 소외는 심화된다.	✓			✓	✓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	✓	✓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자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	✓
이상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업적과 능력에 비례하여 분배의 몫을 정한다.		✓	✓		✓

80)[19 ebs 수특] 틀린 것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육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부(富)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위협시된 것이며, 부의 추구도 나중에 근심 없이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협시된 것이었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 아니라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중략) ... 부단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직업 노동을 단적인 최고의 금욕적 수단이자 동시에 거듭난 자와 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라고 간주한 종교적 평가는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생활관의 확장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아닐 수 없다.

- ① 프로테스탄트들은 재산 낭비적인 향락과 사치재 소비를 반대했다.
- ② 프로테스탄트들은 직업을 신이 명령을 내린 신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 ③ 프로테스탄트들은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 자체를 죄악으로 간주했다.
- ④ 신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직업 노동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
- ⑤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윤리는 자본주의 발달에 원동력이 되었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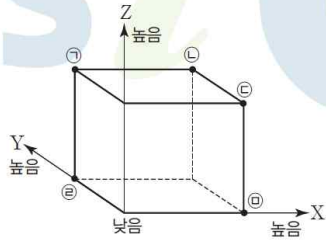
공직, 기업, 전문직 윤리(수특 6강)

zola 풀이!

81)[20 ebs 수특]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

갑: 자유 경제 체제에서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을: 기업은 환경 보호, 사회 복지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 생산품의 안전성 맥락에서, 회사가 받아들인 윤리 규칙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은 훨씬 더 향상된다.



X: 기업의 책임을 이윤 추구에 한정시키는 정도
 Y: 기업의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정도
 Z: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82)[15 ebs 수특]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훌륭한 목민관(牧民官)이 되려면 반드시 자애(慈愛)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용(節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용이야말로 목민관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는다.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빛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짜게 된다.

- < 보기 >
- ㄱ. 목민관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 ㄴ. 목민관은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 ㄷ. 목민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 ㄹ. 목민관은 자기 수양을 통해 형이상(形而上)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83)[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가)	<p>갑: 기업에 이윤 극대화 외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기업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p> <p>을: 기업은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① A: 기업은 공공선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 ② A: 기업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
- ③ B: 기업은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 ④ C: 기업은 이윤 추구 외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 ⑤ C: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경우에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84)[19 ebs 수특]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최근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자본 혹은 인적 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 역시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몇몇 사람들이 시민적 덕성이라고 부르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ㄱ. 물리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달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금전적 자본으로 요약된다.

ㄷ. 시민적 덕성은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ㄹ.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은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85)[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몽땅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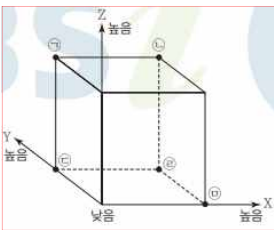
(가)	<p>갑: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각 주체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p> <p>을: 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生)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滅)하면 저것이 멸한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된다.</p>
(나)	 <p>직업인이 자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요?</p>

- ① 갑: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서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 ② 갑: 공동선이 아닌 개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③ 을: 내 업무와 타인과의 연계성을 자각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을: 자신의 직업 생활에 전념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⑤ 갑, 을: 자연의 순리를 알고 어떤 일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86)[18 ebs 수특]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골라.

(가) 기업은 주주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진을 가진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에 자선 목적의 기부를 허용하고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는 정책 방향은 소유와 통제를 분리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 성격과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 기업은 자기 완결적인 고립된 폐쇄 체계가 아니며 사회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존속하는 개방 개체이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적 기부 행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구성 요소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X: 기업 활동에서 이윤 추구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Y: 사회 공익을 위한 기업의 자선 활동을 강조하는 정도
 Z: 기업 소유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정도

87)[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생산하여 목민관을 섬기고, 수레와 수레꾼을 보내어 목민관을 전송하고 환영하며,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목민관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 청렴함은 천하에서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장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무엇 때문인가? 재물이란 우리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바이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므로 재물을 버리거나 취하지 않기도 한다.

- ①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 ③ 공직자는 염치(廉恥)와 탐욕(貪慾)을 지니지 않아야 한다.
- ④ 공직자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를 지니고 봉사해야 한다.
- ⑤ 공직자는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수특 7강)

zola 문제

88)[14 ebs 수특] 다음 글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람들의 이성적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감을 갖게 하며, 교육을 통하여 정의감이 길러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중략)…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타성이다. 사회는 비록 불가피하게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보다 극복하기 어렵다.
- ③ 사회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회복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 ④ 개인의 이성적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 ⑤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89)[15 ebs 수특] ㉠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인간의 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의지를 갖게 하고 이러한 선의지는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부정의는 개개인의 선의지를 고취하여 이기적 충동을 극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을: 아닙니다. 저와 같은 입장을 지닌 어느 서양 사상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이성과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의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당신의 주장이 ㉠ 고 생각합니다.

<보기>

- ㄱ.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사회 정의 달성에 기여함을 무시하고 있다
- 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집단 간의 갈등을 설명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ㄷ. 인간의 이성은 인간 존재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이익에 의해 타락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ㄹ. 인간의 이성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함을 간과하고 있다

90)[18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을 골라!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강제력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적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V			V	V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이 지닌 독특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V		V	V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V		V	V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배타적이며 개인의 도덕성과 조화될 수 없다.			V	V		V

91)[19 ebs 수특]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등과 같이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는 않는다.

- ①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동일한가?
- ②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③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의 도덕성을 결정하는가?
- ④ 개인의 선의지는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가?
- ⑤ 개인이 모두 도덕적이면 사회 갈등이 해결되는가?

- 92)[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보기>
 ㄱ. 집단들 간의 문제는 개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ㄴ. 집단은 개인에 비해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ㄷ. 집단의 도덕성은 합리성과 선의지를 통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ㄹ. 집단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다.

93)[22 ebs 수특] 적절한 것은?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문제 상황)

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 결정자 A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①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합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사회 정의를 위해 집단은 기꺼이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정의는 합리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조정으로만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④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⑤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은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세요.

94)[21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우리 자신의 권리나 욕망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욕망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 모두는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어떠한 국가도 순전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 ① 인간 지성과 선의지가 증가하면 집단 간의 영구적인 힘의 균등이 실현된다.
- ② 개인의 도덕적 자각은 사회 집단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③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한 강제적 요인은 윤리적 요인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 ④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⑤ 사회는 집단의 이기심을 제재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3-4

사회정의의 분류 및 아리스토텔레스(수특 7강)

95)[Zola] 바나나(조선어) 확인

- ① 불평등함은 정의(공정)인가, 부정의(불공정)인가? 아니면 알 수 없나?
- ② 차등 분배는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아니면 알 수 없나?
- ③ 균등 분배는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아니면 알 수 없나?
- ④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아니면 알 수 없나?
- ⑤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아니면 알 수 없나?
- ⑥ 불평등한 결과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아니면 알 수 없나?
- ⑦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사회인가, 불평등한 사회인가? 아니면 알 수 없나?

96) Zola Check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으로 맞으면 ○, 틀리면 

1. 분배적 정의는 시정적 정의와 함께 특수적 정의이다.
2.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할당하는 것은 정의롭다.
3.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
4. 교환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는 모두 비례적이다.
5.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한 것은 정의롭다.
6. 산술적 균등을 회복하는 것은 시정적 정의에 해당한다.
7.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한다.
8. 특수적 정의의 달성은 일반적 정의 달성에 기여한다.
9.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zola 문제

97)[16 ebs 수특] 다음은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의 정의론을 요약한 것이다. ㉠과 ㉡의 예로 적절한 것은?

특수적 정의의 하나로 ㉠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 혹은 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의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각 개인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교섭에 있어서의 올바르게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앞의 것과는 달리 산술적 비례에 의한 동등성을 추구한다.

	㉠	㉡
①	손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한다.	공공선을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킨다.
②	공공선을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킨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③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④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손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한다.
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98)[18 ebs 수특 응용]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지 않은 사람, 또는 옳지 않은 행위는 모두 불공정하거나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동등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하나의 중간이 분명히 있다. 이 중간이 바로 동등함이다. 즉,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동등함이 있다. 그런데 동등함은 분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적어도 두 사람과 두 가지 사물을 포함한다. 서로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 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 ② 각자의 가치에 비례에 비례하는 몫을 분배해야 한다.
- ③ 만민에게 사회적 가치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④ 권력이나 명예를 제외한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 ⑤ 재화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와 산술적 비례의 중간이어야 한다.

99)[18 ebs 수특]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배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의식에 부합한다. 반면에 업적에 따른 분배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다. 업적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업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분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시할 경우 ㉠은 우려를 제기한다.

- ① 과열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 ③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 ④ 빈부 격차의 심화를 초래하여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 ⑤ 선천적인 요소가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100)[20 ebs 수특] 그림은 수업 시간에 사용된 판서 자료이다. 고대 서양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 정의의 의미: ㉠

- ㉡: 공동선과 덕을 장려하는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
- ㉢: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가 있음
- ㉣: 명예, 금전과 같은 가치의 분배와 관련된 것
- ㉤: 사람들 간의 상호 교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 ① ㉠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 ② ㉡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려는 포괄적인 덕이다.
- ③ ㉢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④ ㉣은 당사자들이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옳바른 것이다.
- ⑤ ㉤은 이득과 손실 사이의 중용(中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101)[21 ebs 수특] 푸셈

부분적 정의의 하나의 유형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 부 등의 분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받았다고 되면 싸움이 생긴다. 다른 하나의 부분적 정의는 교섭에 있어서의 옳바름에서 찾을 수 있다. 법은 만일 한 사람은 해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은 해악을 당한 경우, 그 해악의 차이에만 주목하며 그 당사자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일반적 정의는 공동체의 행복을 지향하는 법과 관련된다.		√	√		√	
부와 명예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정의롭다.				√	√	√
이득과 손실 사이의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야 한다.		√		√		√
옳은 것을 원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		√	√

102)[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정의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고, 옳게 행동하게 하며,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 정의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욕심이 많고, 불공정한 사람은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는 정의롭다. 정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덕이며,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크다. 정의의 영역에는 모든 덕이 다 들어 있다. 정의의 덕이 완전한 까닭은 그 덕을 가진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각자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 ③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탁월성을 발휘해야 한다.
- ④ 분배에서 산술적 비례를 따르는 동등함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부와 명예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정의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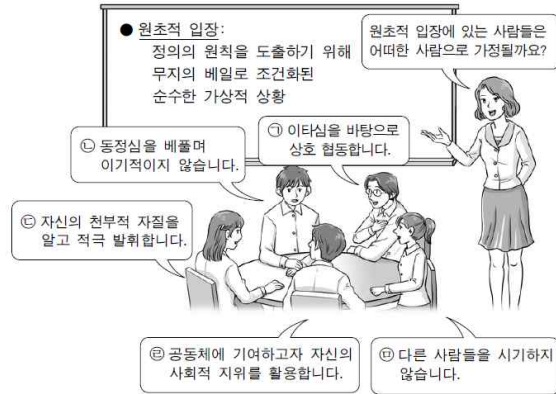
3-5

분배 정의 사상이a 모음(수특 7강)

☛ Zola Guide 윤사와 중복되는데, 윤사보다 어렵기도 함. 이 주제가 진짜 킬러임.

zola 풀어!

103][12-수능-6, 주관식] ㉠~㉣에서 B나 나나들 다 찾아내! 몽땅!



104][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이a가 강조하는 사회 정의의 역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 사람들은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중략)…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보기>

- 여러 사회 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효율성이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한다.
- 사람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게 한다.
-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한다.

105][19 ebs 수특] 알아서 골라줘! 제발~~

(가)	<p>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모든 행위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때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p> <p>을: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를 도출하는 상황에서 각자는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리에 합의하게 된다.</p>
(나)	

- A: 균등 분배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A: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분배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의롭다.
- B: 사회 극빈층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은 정의롭다.
- C: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 C: 사회적·경제적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

106][18 ebs 수특] 다음 사상이a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첫째,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둘째, 소유물의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셋째, 어느 누구도 첫째와 둘째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보기>

-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취득과 양도 과정의 잘못에 대한 교정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국가가 개인들의 근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107][17 ebs 수특 객식] 갑, 을 사상이a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갑'에 의하면 합리적 행위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회의 빈곤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분배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이를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반면, '을'에 의하면, 한 개인의 소유권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배는 정당하다고 전제한다.

<보기>

-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 차등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 무지의 베일을 통해 원초적 입장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 ① 갑-가, 을-나 ② 갑-가, 을-다 ③ 갑-나, 을-라
 ④ 갑-다, 을-나 ⑤ 갑-라, 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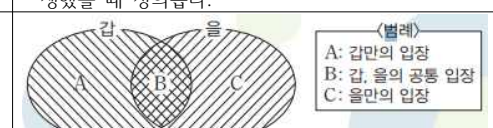
108)[16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과 일치하는 주장에만 'V'를 표시한 학생은?

-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 국가가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성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 중앙 분배,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함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정의롭지 못하다.		V			V	V
분배 결과에 비추어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V	V	V
국가는 국민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V	V		V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V	V		V	

109)[18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을: 우리의 경우, 모든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배적 정의와 완결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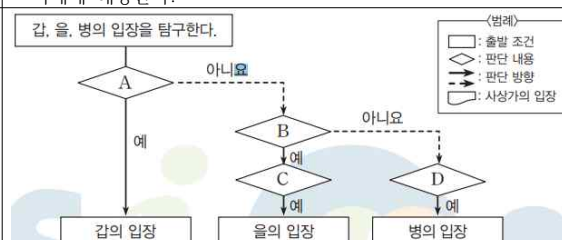
(나)  **<별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 ㄴ. B: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 ㄷ. B: 소득의 분배는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ㄹ. C: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배 과정을 주도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110)[18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을: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병: 분배에서 옳음은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옳음은 일종의 비례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례는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하며 기하학적 비례에 해당한다.

(나) 

<보기>

- ㄱ. A :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될 수 있는가?
- ㄴ. B : 사회적 효용을 위해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는가?
- ㄷ. C :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가?
- ㄹ. D : 각 사람이 지닌 가치에 비례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가?

111)[19 ebs 수특, 주관식, 윤사] 알아서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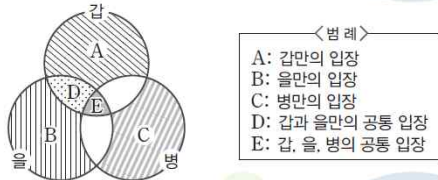
갑: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거기서 도달하게 되는 기본적인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최초의 상태이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게 될 원칙들에 합의한다.
 을: 정의의 원칙은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방법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보기

- ㄱ. 갑은 우연성을 제거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에 따라 분배 대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기본 가치들이 모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주요한 사회적 가치들과 그 의미는 사회마다 같다고 본다.

112)[19 ebs 수특, 주관식, 운사] 이것도 알아서 골라!

갑: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을: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병: 인간 사회는 중요한 점들에서 분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 ① A: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B: 개인의 소유 권리는 소유물의 취득 과정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③ C: 정의의 영역들 간의 경계를 보호하여 복합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④ D: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사회가 공유하는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⑤ E: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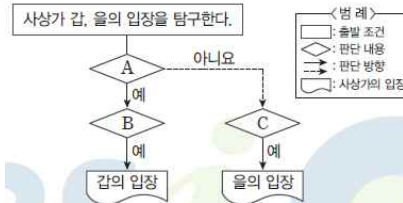
113)[20 ebs 수특, 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한편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을: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을 복합 평등이라고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공직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등과 같은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 보기
- ㄱ. 갑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갑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차등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분배하는 다양한 분배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은 옳과 달리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114)[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원칙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을 쓴 당사자들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가치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이로 인해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을: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 ① A: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② A: 개인의 타고난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가?
- ③ B: 선천적인 사회적 지위는 부정의하므로 제도를 통해 교정해야 하는가?
- ④ B: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⑤ C: 국가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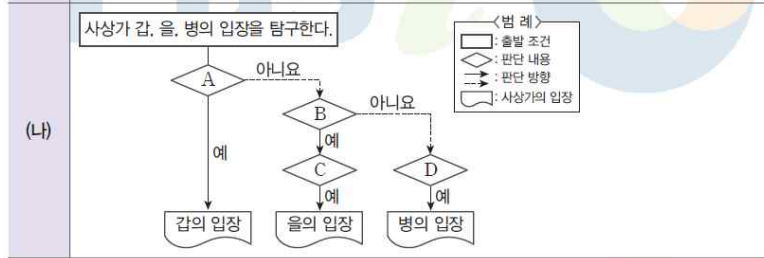
115)[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갑: 개인에 대한 생활 조건의 우연성은 부르주아의 산물 가운데 하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다. 개별 프롤레타리아는 이 우연적인 것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노동이 자기실현으로 전환되고, 단결한 개인들에 의해 총체적 생산력은 포섭된다. 이전의 역사에서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우연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단계에서는 각 개인의 특수한 사적 생업 자체가 우연적인 것으로 된다.
을: 우연성의 영향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우연성이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연적 자산들이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든 아니든 그 개인들은 그것들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그것들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를 지닌다. 그러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갑은 개인의 자질이 다양하게 발휘될 때 인격적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② 을은 자연적 자산의 편향에 따른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옳과 달리 분배의 정당성 여부는 소유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이 자기 노동의 산물 모두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우연성이 자율적인 의지에 기인한다고 본다.

116)[22 ebs 수특, 주관식] 푸는 법 아시죠? 고르세요~

(가) 갑: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노동의 본질을 구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을: 소유 자격의 여부는 소유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소유 자격이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권리가 부여된다.
 병: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

- ㄱ. A: 생산 수단과 사적 소유권이 폐지된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가?
- ㄴ. B: 재화의 취득, 양도, 교정의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하는가?
- ㄷ. C: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 ㄹ. D: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분배 정책은 정의로울 수 있는가?

117)[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갑: 정의는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옳음은 일종의 비례인데 그것은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을: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므로,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병: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함의로 도출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하며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 ① 갑: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② 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분배 정책은 정의롭다.
- ③ 병: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 ④ 갑, 을: 국가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부정의를 교정해야 한다.
- ⑤ 을, 병: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118)[22 ebs 수특] 옳은 것은?

	질문	응답	
		예	아니오
(1)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V	
(2)	사회적 가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가?	V	
(3)	㉠	V	
(4)	㉡		V

- ① ㉠: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 ② ㉠: 모든 사회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 ③ ㉠: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에 존재하는 경계가 없어져야 하는가?
- ④ ㉠: 분배는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가?

3-7

교정적 정의(형벌, 사형제)(수특 7강)

* 번호 3-6은 독해형이므로 생략함.

zola 풀어!

119)[18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처벌은 상당한 고통이다. 또 한편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을: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보기>

- ㄱ. 갑은 형벌이 그 자체로는 악이지만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 ㄴ. 을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형벌의 목적을 범죄를 예방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형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범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Zola Guide 갑, 을 사상가를 구분할 수 있는 문구는?

120)[18 ebs 수특 변형, 주관식]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골라.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그의 형벌에서 그 자신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것이 약속하는 이익에 의해 그를 형벌에서 면하게 하거나 또는 한 단계 경감시키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행복론의 꾸불꾸불한 길을 헤매 다니는 자에게 고통을 주어라!

<보기>

- ㄱ. 형벌 제도는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
- ㄴ. 보복법만이 형벌의 양과 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 ㄷ. 사형은 인간성을 위협하는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인가?
- ㄹ.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121)[17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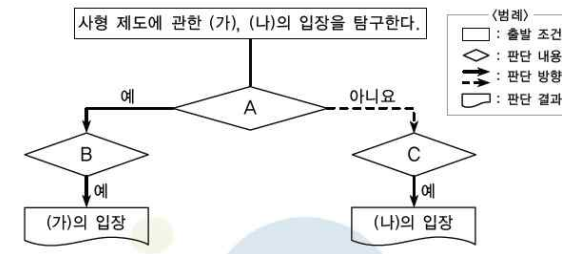
갑: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할 때 시민은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국가는 타인을 살해한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

을: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겠는가?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 포고이다.

- ① 사형 제도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가?
- ②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 ③ 사형 제도는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④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인가?
- ⑤ 사형 제도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122)[15 ebs 수특, 주관식] (가), (나)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 (가)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 (나)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겠는가?



<보기>

- ㄱ. A: 국가는 시민들이 생명 보전을 위해 사형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가?
- ㄴ. B: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ㄷ. C: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위해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ㄹ. C: 모든 인간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니는가?

123[19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형벌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 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을: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 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때문에 그 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판 방향	비판 내용
①	갑이 을에게	형벌이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모르고 있다.
②	갑이 을에게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③	갑이 을에게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고려하는 형벌임을 모르고 있다.
④	을이 갑에게	형벌이 범죄의 해악 정도보다 무겁게 부과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⑤	을이 갑에게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124[20 ebs 수특, 주관식]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처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나)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처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 【 보기 】
- ㄱ. 형벌은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필요악임을 모르고 있다.
 - ㄴ.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ㄷ.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 보복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ㄹ. 범죄자의 인격을 공공선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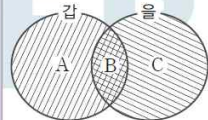
125[20 ebs 수특]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 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 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을: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強度) 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 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 저온다.
 병: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 (生)이라 해도 생과 사(死) 사이에 동등성은 없으며,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 ① 갑: 사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② 을: 형벌은 공공의 선(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③ 병: 범죄자는 자율적으로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 ④ 갑, 을: 사형 제도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 ⑤ 갑, 병: 형벌의 양과 질은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26[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가) 갑: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격언에 따라 이익 때문에 형벌이 부과되 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지상에서 인간의 삶은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복법이다.
 을: 공동체 전체의 행복은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이다. 만일 형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형벌은 범죄자의 행위와 그 외 일반인 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동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A: 형벌은 교정과 본보기의 방식으로써 작용되어야 한다.
- ② A: 형벌은 최대한 효과적이면서도 관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③ B: 형벌의 집행을 통해 사회의 공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 ④ C: 형벌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⑤ C: 범죄 그 자체에 대한 보복을 형벌의 주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127)[21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법은 일반 의지로부터 나온다. 법의 목적은 전원의 최대 행복이다. 이 목적은 개인이 생명권을 비롯한 자연권 전체를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다.

을: 법은 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개인이 사회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국가가 한 시민을 죽이는 것이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벌이는 전쟁이다.

병: 법은 실천 이성이 외적으로 법칙을 수립해 개인을 강제하는 권리의 상징이다. 보복법에 따르는 형벌의 권한은 공적 이성에 있다. 그러함에도 형벌 받기를 약속하는 범죄자의 계약을 그 권한의 기초로 삼는 것은 범죄자 자신을 재판관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의 왜곡이다.

(나)

〈범례〉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

〈예시〉
갑 → 을 (A)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사형은 생명 보존의 사회 계약을 이행하는 형벌임을 모르고 있다.
- ② B: 형벌 부여의 타당한 척도는 범죄자의 범행 의사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C: 시민 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E: 어떠한 국가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 ⑤ D, F: 형벌 받을 행위를 약속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128)[22 ebs 수특] 옳은 것은?

갑: 인간은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준다.

을: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병: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 ① 갑: 사형은 살인범을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 ② 을: 형벌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므로 그 자체로 선(善)이다.
- ③ 병: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동일하다.
- ④ 갑, 을: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⑤ 갑, 병: 선의지는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9)[14 ebs 수특 각색]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 (나) 사형 제도는 범죄 억제책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인간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기 때문이다. 사형이라는 법적 살인은 상당한 연구와 격식을 갖추고 집행되는 까닭에 국민들의 의식에 유해하다.

- ① 중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 ② 사형 제도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 ③ 인간의 생명은 계약을 통해 통치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 ④ 유용성의 차원에서 사형 제도의 존재를 논하는 것은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라고!
- ⑤ 범죄자가 의욕한 형벌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의 본질이라고!!

130)[16 ebs 수특]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없애려 한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을: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살인을 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

형사 처벌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판단 결과

- ① A-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 ② A-형사 처벌의 근본적 목적은 범죄의 억제와 예방에 있는가?
- ③ B-처벌은 필요악이므로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하는가?
- ④ C-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인가?
- ⑤ C-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가?

3-8

국가와 시민의 윤리(1) - 국가관(수특 8강)

☞ Zola Guide 새롭게 추가된 부분임. 일부는 14~16학년도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임. 과거에 윤사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을 막 끌어왔음.

zola 풀이!!

131)[16-10교-11, 윤사,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자연의 산물들 중 하나인 국가는 최고선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이다.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삶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이다. 개인으로 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나 최선의 생활이란 덕이 있는 생활이다.

<보기>

- ㄱ. 국가에 대한 복종 의무는 사회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ㄴ. 개인과 국가는 모두 선의 실현을 목표로 추구한다고 본다.
- ㄷ.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본다.
- ㄹ. 개인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132)[20-9-13, 윤사]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 뿐 아니라 입법 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133)[17-6-14, 윤사]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을: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134)[12-9-11]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병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그림 생략)

갑: 통치자는 일을 도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의 존재조차도 모를 때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을: 통치자는 백성들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서로 이익을 나눌 때 천하가 평안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 통치자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간사한 지혜에 차 있으므로 오직 상과 벌로써 다스려야 합니다.

- ① 천하의 이로움이 곧 의로움을 주장하는가?
- ② 백성들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강조하는가?
- ③ 사치를 삼가고 생산에 힘쓸 것을 주장하는가?
- ④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가?
- ⑤ 본성의 변화를 위해 법(法)과 술(術)을 강조하는가?

135)[10-수능-8, 윤리]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이 주장하는 사상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통치자가 자연을 법칙으로 삼아 다스림이 없이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을: 군주는 하늘을 법도로 삼아 생산을 저해하는 번잡한 예를 고치고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켜야 하지요.

병: 왕이 성왕(聖王)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않는다면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 ① 갑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명 사회를 추구한다.
- ② 을은 무지하고 무욕한 백성들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 ③ 갑, 을은 인륜 도덕에 바탕을 둔 백성의 교화를 강조한다.
- ④ 갑, 병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의 시행을 군주의 역할로 본다.
- ⑤ 갑, 을, 병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백성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한다.

136)[11-9-16. 윤리]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병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그림 생략)

갑: 성인(聖人)은 만물을 소유하지도 않고 공(功)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백성들에게 무욕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을: 성인은 부모조차 계산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한다고 여겨, 이(利)와 해(害)를 통해 조종하는 제도로 다스립니다.
 병: 성인은 힘이 아닌 덕(德)으로써 백성들을 감화시키고,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 ① 갑은 만물을 생성하는 인(仁)의 덕을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인위적인 예법으로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시비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법술(法術)로, 병은 인의(仁義)로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37)[19 ebs 수특, 윤사]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로우며, 그 자신의 동의를 제외한 어떤 것도 그를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그런데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된다. 명시적 동의를 통해 개인은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정부의 신민이 된다. 명시적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 된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가는 개인의 재산 보호와 공공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			√	√
국가 권력을 없애거나 바꾸는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		√	√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계약을 통해 발생한다.		√	√	√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

138)[19 ebs 수특, 윤사]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의 의무는 정의로운 현행 제도를 우리가 지지하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나친 희생이 없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정의로운 체제를 세워 갈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로운 경우 모든 사람은 현존 체제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습니다.

- ① 정의의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정의로운 사회 체제에서는 정의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 ③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적 의무이다.
- ④ 부정의한 법일지라도 항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자연적 의무이다.
- ⑤ 자연적 의무는 의무를 지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139)[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바르게 답한 것은?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너도 너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나와 마찬가지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존에 있다. 따라서 설령 한 인간이 말 또는 기타 표시에 의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지나 의도였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질문	대답
①	인간은 이성을 지닌 선택 존재인가?	예
②	통치권자는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예
③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인가?	아니요
④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	아니요
⑤	안정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분할되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요

140)[20 ebs 수특, 주판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 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보기 】

- ㄱ. 국가는 자연 발생하는 공동체의 한 형태이다.
- ㄴ.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양도될 수 있는 것이다.
- ㄷ. 인간의 모든 권리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 ㄹ.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이익을 보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141)[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므로[兼愛交利] 필히 상을 받지만, 하늘의 뜻에 반하는 자는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며 적대시하므로 필히 벌을 받는다. 하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자는 차별 없이 사랑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윗사람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을: 인간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인간은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므로 이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상벌의 주도권이 신하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신하를 따르게 되므로 군주는 상벌을 주도해야 한다.

- ① 갑: 군주는 백성과 상호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
- ② 갑: 군주는 타국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 ③ 을: 군주는 법이 아닌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 ④ 을: 군주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⑤ 갑, 을: 군주는 하늘의 뜻인 사랑을 바탕으로 통치해야 한다.

142)[20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기반 위에 세워졌다.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송고한 노력을 한 조상들과 희생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을: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하찮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 【 보기 】
- ㄱ. 갑은 통치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다고 본다.
 - ㄴ. 을은 통치자가 부덕한 경우에도 피치자의 불복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피치자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통치자가 피치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143)[15 ebs 수특] B의 입장에서 A에 대해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사상	A	B
의미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사상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시대 국왕과 신하가 경서를 읽고 토론한 경연 제도 • 조선 태종 때 설치한 신문고 제도 •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여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 분립 제도 •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하는 입헌 제도 •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선거 제도

- ① 도덕적인 공동체 수립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백성이 주권자이며 정치의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③ 백성을 이끌어 갈 통치자의 자질과 덕성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 ④ 통치자의 우선적 임무가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백성의 뜻을 반영해야 위민(爲民)의 정신이 실현됨을 간과하고 있다.

144)[21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이며, 임금의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꾸고, 제사의 때를 어기지 않고 잘 지냈음에도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사직을 바꾼다.
 을: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만약 입법부가 야심, 공포,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거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들에게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①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는가?
- ② 통치자는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 ③ 통치자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가?
- ④ 정당하게 세습된 권력은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 ⑤ 통치자의 권력은 개인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이후에 생겨나는가?

145)[22 ebs 수특] 옳은 것은?

갑: 백성을 인도하기를 정(政)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刑)으로써 하면 백성이 죄짓는 것은 먼 하나 부끄러워함이 없다. 인도하기를 덕(德)으로써 하고 다스리기를 예(禮)로써 하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한 바르게 된다.

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군주는 필연적으로 압도할 책략(數)을 장악해야 하며, 신하를 제압하기 위해 군주는 존엄한 위세(勢)에 처해야 한다. 명령은 행해지고 금령(禁令)이 지켜짐에 따라 군주는 존엄해지고 신하는 비하(卑下)된다. 즉 군주의 존엄성은 친애심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 위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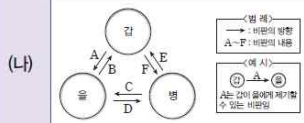
- ① 갑은 예가 개인의 수양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기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인의(仁義)의 도덕을 공적 영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통치자는 명분[名]보다 실리[實]를 추구함으로써 백성들이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예의[禮]로 교화함으로써 이상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통치자가 법령과 형벌을 근본으로 삼고 덕치(德治)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146)[22 ebs 수특] 옳은 것은?

갑: 인간이 본래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을 통해 공동 사회를 구성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구성원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정부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한다.

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는 부정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없으며, 네 것과 내 것의 구분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는 본능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다. 인간의 이성은 평화의 조항들을 제안하는데 우리는 이를 자연법이라 한다.

병: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힘을 다해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이와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 계약이 해결해 주는 근본 문제이다.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



- ① A: 어떤 사람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A, C: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는 이성에 따른 합리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 ③ B: 국가 권력의 분립 없이 통치자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하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C, E: 통치 권력은 자의적 명령을 통해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D, F: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적 자유를 잃게 되지만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됨을 간과한다.

147)[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셈.

천하의 가장 큰 해는 무엇인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다수가 소수를 폭압하며,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는 것이 천하의 큰 폐해이다. 또한 임금 된 자가 은혜롭지 않고, 신하 된 자가 충성스럽지 않고, 아버지 자가 자애롭지 않고, 자식 된 자가 효성스럽지 않은 것이 천하의 큰 폐해이다. 이러한 폐해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데 있다. 천하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행위는 평등주의[兼]가 아니라 차별주의[別]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서로 차별하는 자들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천하에 큰 해독을 끼치는 자들일 것이다.

보기

- ㄱ. 백성에게 은혜롭지 않은 군주는 구성원의 안정된 삶을 위협할 수 있다.
- ㄴ. 자국에 대한 사랑을 확대하여 타국에 적용하는 인(仁)을 추구해야 한다.
- ㄷ. 만민은 국가 경계를 넘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돌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ㄹ. 군주는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며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통치해야 한다.

3-9

시민 불복종(수특 8강)

zola 문제

148)[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을: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나)

- ① A: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만이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② A: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③ B: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④ C: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이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⑤ C: 극단적으로 부정의한 사회에서도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49)[16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를 니가 직접 니 손으로 표시해라!!!

- * 만일 우리가 헌법을 사회 협동 체제의 기본 헌장으로 생각한다면 헌법이 정의롭고 그 운용에서 오는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계획일 경우, 그리고 제정된 법규나 정책이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공정한 경기 운영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 * 법 체계가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는 법 체계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당한 정의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점	니가 ✓ 표시해!
(1) 다수결로 정해진 모든 법은 정의로우므로 복종해야 한다.	
(2)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	
(3) 법 체계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그 법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4)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에 대한 합법적인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법에 불복종할 수 있다.	

150)[18 ebs 수특, 주관식]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 생겨납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
- ㄴ.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인 정의관에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한다.
- ㄷ.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항 행위도 시민 불복종에 해당한다.
- ㄹ. 종교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시민 불복종의 범주에 포함된다.

151)[22 ebs 수특]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 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해 정당화되므로 단순한 도덕적 항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의미한 행위이다.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불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란 언제나 최고 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복종한다면 그러한 법을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불공정한 법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

- ① 법의 합헌성 여부가 문제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헌법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다.
- ③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면 안 된다.
- ④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법에 대한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종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의 견해가 아닌 헌법 그 자체에 근거해야 한다.

152)[21 ebs 수특]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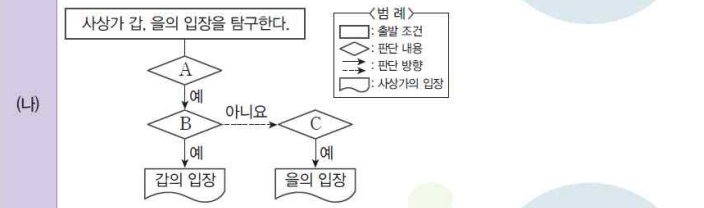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은 다수에 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의원을 설득하려는 것이거나,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해 재고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법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이므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합니다. ... (중략) ... 시민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도덕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각 사회의 시민 불복종이 그 사회에 가져올 손익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①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항상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부정의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효용성이 아니라 절대적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
- ⑤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방법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153)[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가) 갑: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법을 준수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위반할 것인가?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하며,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을: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① A: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준법의 의무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 ② B: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하는가?
- ③ B: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법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가?
- ④ C: 시민 불복종은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C: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이 아닌 개인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가?

154)[22 ebs 수특] 고르세요.

나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에게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불복종이 공동체에 대한 호소라면 왜 공동체가 이미 수용하고 있는 원칙들을 근거로 하는 호소여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현존하는 사회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이상일 뿐이므로 공유된 정의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상가는 시민 불복종이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은 점을 간과한다고 본다.

- ① 공유된 정의관은 만장일치를 통해 도출되므로 변경할 여지가 없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 ③ 공유된 정의관에 속하지 않는 영역들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완전한 정의관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이 가능하다
- ⑤ 시민 불복종은 현존하는 법에 대한 위반이므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려는 시도가 된다

155)[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이)란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에서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저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소 고의적인 부정의가 행해질 경우, 그리고 그 부정의가 시민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경우,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경우에 유사한 방식으로 저항하려는 성향이 일반화되어도 합당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경우에 정당화된다.

- < 보기 >
- ㄱ.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을 거부하였다.
 - ㄴ. 인권을 부인하는 독재 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 ㄷ.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활 편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시위를 했다.
 - ㄹ. 민주 국가에서 특정 종교의 의례를 금지하는 법을 일부러 따르지 않았다.

4-1

과학 기술과 윤리(수특 9강)

zola 풀이!

156)[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 【 보기 】
- ㄱ. 과학 기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 ㄴ.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도구일 뿐이다.
 - ㄷ. 과학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ㄹ.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경우 인간은 과학 기술에 조종당할 수 있다.

157)[13 ebs 수특 실착 변형]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Zola는 Queen Banana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아내 쭈와 함께 지하 미궁(迷宮)에 감금된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밀랍으로 이어붙인 거대한 날개를 달아 탈출을 도모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날개짓이 점차 익숙해지자 쭈는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더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날개의 힘을 과대평가한 쭈는 태양과 너무 가까운 곳까지 올라가 버렸다. 태양열에 의해 밀랍은 녹아내렸고 날개는 떨어졌으며 결국 쭈는 바다로 추락하여 죽고 말았다. 아내의 죽음에 Zola는 처음에는 슬퍼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삶과 죽음이 춘하추동(春夏秋冬)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고 신선(神仙)이 되었다.

- ① 과학 기술에 의한 문명의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 ②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 ③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의 진보를 신뢰해야 한다.
- ④ 과학 기술에 대한 낙관적 세계관을 확장해야 한다.
- ⑤ 과학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맹목적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

158)[개념 확인, ebs 활용]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0개~모두)

- [A] --- '에' --->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고 일반적인 인과 법칙으로 환원시킨다.
- ① 생명현상을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② 체험되는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 ③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단일한 것으로 축약할 수 있는가?
- ④ 구체적이고 생생한 인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하는가?
- ⑤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기계적 인과 관계로 설명가능한가?

159)[17 ebs 수특]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본래 인간에게 구비된 이성은 어떤 적절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이성은 주관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만을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기술적인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고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이성이 이론적인 계산을 토대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제시하여 인간 및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도구화되어 버렸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현대인들이 인간성을 회복하여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div>  </div>

- ① 비판적 이성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 ② 실증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를 개선해야 합니다.
- ③ 쓸모 있는 것이 진리라는 사고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 ④ 가치 중립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⑤ 효율성과 계산 가능성의 원리를 토대로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60)[19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술 그 자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중립적이다. 현대 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있으나 인간의 정신적 각성을 통해 기술에 의해 초래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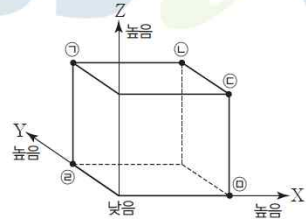
을: 기술은 단순한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기술은 주어진 사물들을 생산, 가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본질 속에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위험이 깃들어 있다. 현대 기술 문명의 시대에 우리는 기술을 통해 자연과 세계를 하나의 기술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기술의 대상으로 만들어 간다.

- 【 보기 】
- ㄱ. 갑은 기술이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본다.
 - ㄴ. 갑은 인간이 기술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인격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 ㄷ. 을은 기술이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현대 기술이 인간을 종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161)[21 ebs 수특]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갖는 특징은?

갑: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술 그 자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중립적이다.

을: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X: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
 Y: 기술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는 정도
 Z: 기술 그 자체가 인간을 종속화할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하는 정도

162)[22 ebs 수특] 한 사람을 고르면 됨!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며,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기술을 목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는 기술에 관한 도구적 규정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본질을 올바르게 밝혀 주지 못한다. 우리가 이 점에 유의한다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완전히 다른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 탈은폐의 영역, 즉 진리의 영역이 그것이다. 탈은폐란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놓음'을 뜻하며, 기술이 사물을 탈은폐시킴으로써 사물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다.

진술	학생	갑	을	병	정	무
기술은 사물의 존재를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		√	√			√
기술의 수단적 가치를 우선할 때 기술의 본질이 규명된다.				√	√	√
기술은 사물을 탈은폐시키는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		√		√		√
기술의 본질이 반영되지 못한 피상적 의미 규정을 지양해야 한다.			√		√	√

163)[18 ebs 수특, 주관식] 제시문의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현대의 문제는 기술을 사회의 지배 원리로 떠받드는 데 있습니다. 기술은 이성을 사용하여 사물을 지배하고 정신적인 것조차 설명하고 질적인 것을 양적으로 환원시킬 뿐 아니라, 이제는 기술이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되고 기술이 도덕의 심판자가 되며 새로운 도덕의 창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 기술주의 문화에서는 기능적 사고가 그 기준을 이루고 있어 모든 가치 판단이 조작주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의 신앙의 위험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인류가 직면한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보기>

- ㄱ. 과학적 지식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인간 삶의 정신적 풍부함을 축소시킨다.
- ㄷ. 과학 기술 지상주의는 인간의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 ㄹ. 도덕규범의 가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사고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164)[22 ebs 수특] 고르세요~

갑: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 탐구에서 과학 지식을 얻어 내는 '발견의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과학자의 개인적 요소는 물론이고 사회적, 문화적 요소도 개입되므로 과학 지식은 구성의 영역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을: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 탐구에서 과학 지식의 진위 여부를 가늠하는 '정당화의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탐구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지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철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보기

- ㄱ. 갑: 발견의 맥락은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 ㄴ. 갑: 새로운 지식의 발견은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
- ㄷ. 을: 정당화의 맥락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다.
- ㄹ. 갑, 을: 과학 지식은 과학자들의 탐구의 산물로 가치 중립성을 지닌다.

4-2

정보 사회와 윤리(수특 10강)

zola 푸셈!

165)[15 ebs 수특] 갑의 입장에 대해 옳이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들이 더 많이 사이버 정치 토론에 참여할수록 정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더 책임있는 정치를 구현하게 된다. 나아가 정치 과정에 직접적인 시민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을: 전자 민주주의는 플라톤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중에 의해 신중치 못한 정치적 결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터넷상의 '정보의 홍수'는 정치적 담론에 디미돌이 되기보다 결립돌로 작용하는 '왜곡된 정보'를 양산할 것이다.

- ㉠ 중우 정치가 지닌 위험성을 경시하고 있다.
- ㉡ 정치에 시민 참여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 전자 민주주의가 지닌 단점을 과장하고 있다.
- ㉣ 시민이 지닌 합리적 선택 능력을 무시하고 있다.
- ㉤ 인터넷이 전자 민주주의를 촉진함을 모르고 있다.

166)[18 ebs 수특]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현대 정보 사회는 '빅 브라더'가 통제하는 사회이거나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현대 정보 기술은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통치자가 교묘한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고도의 감시 장치를 바탕으로 피감시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피감시자들은 항상 감시와 통제를 받는 피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보기>

-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 ㉡ 정보 소통에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성을 추구한다.
- ㉢ 정보의 생산·유통을 소수 집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 ㉣ 첨단 정보 기술 체계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20 ebs 수특]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플라톤의 “국가”에는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기계스는 우연히 금반지 하나를 얻게 되는데, 이 반지의 보석 부분을 밀로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위로 돌리면 다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이 반지를 이용하여 왕이 사는 곳으로 숨어들어가서 왕을 살해한 다음, 왕국을 장악한다. 이 이야기에서 기계스의 반지는 익명성을 상징하며,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계스는 익명성을 악용한 유형에 해당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은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 ㉠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 ㉡ 익명을 사용하여 낯선 사람들과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 ㉢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러 수 있다.
- ㉣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정치적 비판이나 내부 고발을 손쉽게 한다.
-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도덕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167)[15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정보 복지 정책은 불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일부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채택과 활용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되면서 정보 격차 현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 인하와 편의성 증대 등으로 정보 격차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을: 정보 복지 정책은 필요합니다. 기술의 혁신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기술은 항상 가격이 비싸서 상류층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활용의 계층 간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은 기존의 정보 격차가 완화되기 전에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술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빈부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복지 정책이 요구됩니다.

<보기>

- ㉠ 정보 격차를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가?
- ㉡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정보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가?
- ㉢ 정보 격차 현상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반대하는가?
- ㉣ 정보 격차 현상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하는가?

168)[19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이버 공간은 확장될수록 점점 더 대중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 점점 더 전 체주의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중에게 보편적인 성격의 문화의 장(場)인 사이버 공간은 기준도 중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내용 없이 비어 있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사이버 공간은 상호 연결, 가상 공동체의 창조, 공동의 지적 자산의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창조의 장이 될 것이다.

을: 사이버 공간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산물이다.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열었으나 주로 인터넷 기술을 창조한 사람들과 이에 능숙한 사람들의 특정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자본을 가진 기업은 기술의 변화에 개입하고 현실 세계와의 상호 작용보다는 기술의 활용에 집중하여, 사이버 공간은 자본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 ㉠ 갑은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함으로 인해 정보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 ㉡ 갑은 사이버 공간이 인간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이라고 본다.
- ㉢ 을은 사이버 공간의 기술은 모든 이용자의 필요를 평등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 ㉣ 갑은 을과 달리 사이버 공간이 경제 논리에 의해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 ㉤ 을은 갑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로운 인간관계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169)[19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기술의 발달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정보의 이동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대인을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판 유목 물품들은 사람들을 장소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밤과 낮, 일터와 가정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일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났다.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며 디지털 유목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력과 자본력을 지닌 소수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보 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람을 노동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은 ㉠ 고 생각한다.

- ① 정보화 시대에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정보 기술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정보 기술의 발달이 노동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정보 기술이 삶의 편리성과 정보 이동의 신속성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⑤ 정보화 시대에 경제적 빈부 격차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170)[21 ebs 수특] 고르셈!

○○ 신문 **칼럼** ○○○○년 ○월 ○일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 주는 반지를 얻은 기계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기계스는 이 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왕을 살해하여 왕국을 장악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보장해 주면, 익명성을 악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춘 사람들은 반지를 얻은 기계스처럼 자신의 욕심과 충동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 .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 보기
- 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한다
 - ㄴ. 범죄 행위에 대한 유혹이나 충동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 ㄷ. 자신의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 ㄹ. 행위를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171)[22 ebs 수특] 고르셈!

<p>정보 사회에서 정부가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시민들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보 사회가 일종의 판옵티콘이 되어 시민들을 가둬 놓고 있는 것입니다.</p>	<p>아닙니다. 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은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여 힘을 합치는 시놉티콘의 시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p>
<p>1 갑 을</p>	<p>2 갑 을</p>
<p>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보 사회에서 현실의 정치 권력이 정보 통신 기술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아닌 권력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어 시민 참여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p>	<p>제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의 주장은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고 생각합니다.</p>
<p>3 갑 을</p>	<p>4 갑 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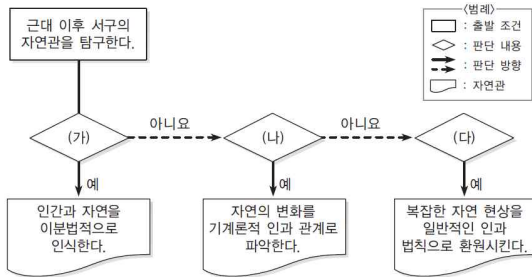
- ① 사이버 공간에서는 권력을 감시하기보다 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기가 쉬움을 간과한다
- ② 정보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부 권력이 사이버 공간까지 통제력을 발휘하게 됨을 간과한다
- ③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시민 협력이 강화되어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정부는 정치에서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장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의 증대가 권력의 부조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을 강조한다

4-3

환경과 윤리(수특 11강)

zola 푸썸! 바나나 조심하고!!

172)[14 ebs 수특 활용] 그림의 (가)~(다)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 ① (가) : 자연에는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는가?
- ② (가) :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가?
- ③ (나) : 전체로서의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④ (나) :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 ⑤ (다) : 자연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재구성된 것인가?

173)[13 ebs 수특] 다음 사상가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문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동물도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아닌 존재의 '감각'이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도 가능하지 않다.

- ①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이다.
- ② 인간과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 ③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성적 사고 능력은 도덕성의 성립 조건이다.
- ⑤ 도덕성은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경험은 이성과 무관하다.

174)[13 ebs 수특+14 ebs 수특] '칸트'가 긍정할 진술문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 ① 고통의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으므로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 ②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일이다.
- ③ 동물 학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
- ⑤ 유일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175)[15 ebs 수특 활용,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무생물)'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p> <p>을: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폐기물을 바다나 대기 중에 버리는 일, 생태계의 파괴하는 일, 자원의 고갈하는 일은 동료는 물론이고 미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 정도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어떤 것의 보충 없이도 우리의 생태적 관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p>
(나)	

<보기>

- ㄱ. A: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덕 규범이 필요한가?
- ㄴ. B: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새로운 환경 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ㄷ. C: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 ㄹ. D: 인간과 자연은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176)[18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무생물적 자연'을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들은 지구와 인간 사이에는 지구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껴 왔다.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무생물)'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보기>

- ㄱ. 대지의 가치를 유용성의 측면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잘못이다.
- ㄴ. 자연 또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ㄷ. 도덕적 무능력자는 그 자체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 ㄹ.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177)[16 ebs 수특, 주관식]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갑: 감정과 이성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들은 자연적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명지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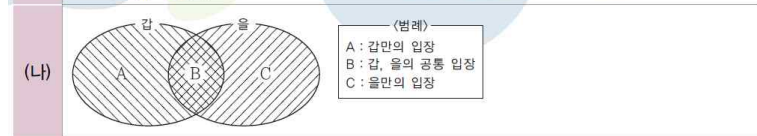
을: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점점 약화되어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은 신이 인간과 동물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본다.
- ㄴ. 을은 인간이 동물에 대한 간접적 도덕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동물을 비이성적 존재로 본다.

178)[16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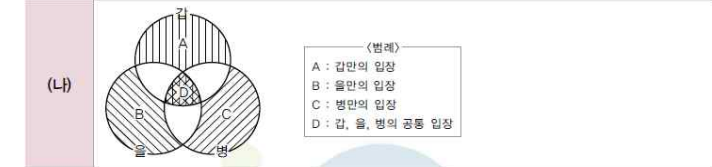
(가) 갑: 어떤 개체가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아가에게 일정량의 고통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소나 말에게 동일한 양의 고통을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 <보기>
- ㄱ. A: 삶의 주체인 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 ㄴ. B: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모든 동물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 ㄷ. B: 식용을 위해 공장식으로 길러지는 동물 사육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
 - ㄹ. C: 인간의 고통은 동물이 느끼는 동일한 양의 고통보다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179)[15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을: 인간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이라 하겠다.
 병: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 <보기>
- ㄱ. A: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의 이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ㄴ. B: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 ㄷ. C: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녀야 한다.
 - ㄹ. D: 인간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을 지니는 존재이다.

180)[16 ebs 수특]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내적 기능과 외적 활동들이 모두 목적 지향적으로 자신의 유기체적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일관된 경향을 가지며, 그래서 그 종을 재생산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생물학적 기능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을: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인간은 동물을 잘 길들여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량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동물의 경우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다.

- ① 생태계 자체나 무생물에도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②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 간의 차등적 위계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③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④ 동물과 식물, 낮은 단계의 유기체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 ⑤ 지각 능력이 없더라도 생명체라면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자각해야 한다.

181)[16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소한 몇몇 포유류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지각과 기억을 하고 미래가 있음을 안다. 동물을 또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동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공동체 자체도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고 있다
- ②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 ③ 동물, 식물, 물, 토양을 포함하도록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고통을 느끼는 모든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경시하고 있다
- ⑤ 개체보다 생태계 자체를 강조하면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182)[17 ebs 수특 응용, 주관식] 다음 대화에서 학생들이 모두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센세 : A 사상가에 대해 발표하데쓰까?

학생 1 :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했데쓰.

학생 2 :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데쓰.

학생 3 :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했데쓰.

<보기>

- ㄱ.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이다.
- ㄴ. 인간은 생명체의 삶의 조건인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 ㄷ.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들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ㄹ. 인간은 다른 유기체에 비하여 가치 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 ㅁ.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갖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83)[20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골라!

'큰 자아실현'이라는 규범은 기본적으로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는 고립된 자아로 정의되는 근대 서구적 자아를 넘어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립되고 협소한 경쟁적 자아로 보지 않고 가족과 친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큰 자아실현'은 거기에 더해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과의 일체화를 요구한다. 생물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하여, 결국 '큰 자아실현'의 맥락 안에서 자기 나름의 개별적인 삶을 전개하고 자아실현에 이르게 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직관은 생태권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와 모든 실체가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들로서, 본래적 가치에서 동등하다는 것이다.

보기

- ㄱ. 모든 유기체가 생명의 연결망 속에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 ㄴ.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 ㄷ.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존재는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소유한다고 본다.
- ㄹ. 인간은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생할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184)[19 ebs 수특]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단순한 생존은 식물도 지니고 있는 기능이고, 감각을 느끼며 움직이는 것은 동물도 지니고 있는 기능이다. 영혼의 이성적 능력만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은 스스로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기능에 종속되기도 한다. 이성의 실현이라는 인간의 기능 실현이 다른 것들보다 상위의 목적이다.

을: 우리가 인간을 먹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닌 고유한 가치 때문이다. 즉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지 인간이 도덕 행위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뿐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몇몇 포유류는 자기의 삶을 사는 데 요구되는 자격을 지녔다. 따라서 그들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하며 우리의 자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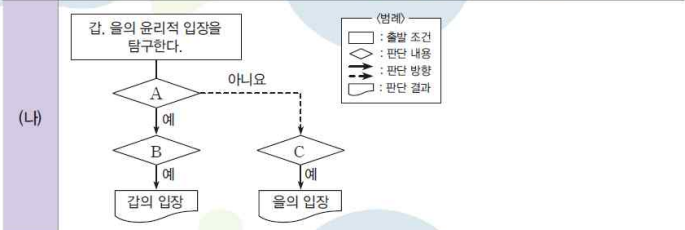
병: 우리는 갈가에 핀 꽃 한 송이도 무심히 따면 안 된다. 그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에 대해 과오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가치 있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괜찮다고 경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윤리적이다.

- ① 갑이 을에게: 식물은 감정이 없으므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② 을이 갑에게: 인간 이외의 존재가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병이 갑에게: 다양한 종(種) 간의 도덕적 지위의 동등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갑이 을, 병에게: 동식물은 유용성에 따라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병이 갑, 을에게: 생명 공동체의 존속이 개체의 복지보다 우선함을 모르고 있다.

185)[17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 모든 생물이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요한다. 모든 도덕적 행위자는 생명체가 지닌 선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는 야생 동식물을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이해해야 한다.

을: 지구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복지 및 번영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가치는 인간에게 유용한가의 여부와는 별개이다. 지구 상 생명 형태들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들의 실현에 기여하며, 따라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A: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에 대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 ② B: 인간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상호 의존 체계에 구속되어 있는가?
- ③ B: 인간은 생명체의 조건인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개조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④ C: 인간은 전일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파악해야 하는가?
- ⑤ C: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가?

186)[18 ebs 수특] 표는 어느 서양 사상가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 응답지이다. 응답이 모두 옳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	질문	응답	
		예	아니요
(1)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가?	V	
(2)	성장한 포유동물을 사냥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인가?	V	
(3)	꽤 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		V
(4)	㉠	V	

- ①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②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③ 인간 이외의 성장한 포유동물을 도덕적 무능력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④ 인간과 동물의 이익의 합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위인가?
- ⑤ 삶의 주체는 감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

187)[19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 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성적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런 의미에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물의 선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동물의 선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선은 생각하고 숙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을: 모든 실재는 정신과 육체라는 두 가지로 환원될 수 있다. 정신의 영역에는 사고, 감각, 의식이 포함되며 육체의 영역에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 물리적인 영역은 완전히 기계적이기 때문에 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동물과 식물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의식이 결핍된 존재이다.
 병: 모든 생명체는 의식이 있든 없든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닌다.

(나)

- ① A: 이성을 소유한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② B: 이성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명체들 간에도 위계가 있다.
- ③ C: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④ D: 식물과 동물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적 존재이다.
- ⑤ E: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본질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188)[21 ebs 수특] 갑, 을 사상가 중에서 한 명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동물을 잘 길들여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량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동물의 경우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다. 동물을 이용한 옷과 도구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을: 어떤 개체가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 ①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 ②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하는가?
- ③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④ 동물과 식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⑤ 동물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189)[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가) 갑: 하나의 존재는 개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큰 자아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을: 이익 쟁투 고려의 원칙에서 볼 때 한 개체가 어떤 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병: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외적 활동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고, 자신의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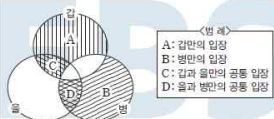
(나)

- ① A: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② B: 우정성을 지닌 존재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③ C: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 ④ C: 인간이 생태계를 개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D: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190][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모두!!

갑: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적 물체들이 목적 때문에 작용하는 것을 본다. 자연적 사물들을 목적으로 질서 지어 주는 어떤 자성적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가) 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들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므로 단지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유용성 여부로 삶의 주체인 동물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병: 생명 외경 윤리는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 대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만든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되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돕는 필요성에 순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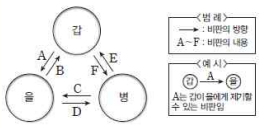
(나) 

- 보기
- ㄱ. A: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에 대한 해악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ㄴ. B: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ㄷ. C: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인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 ㄹ. D: 비이성적 존재를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원리가 존재한다.

191][22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갑: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힘이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가) 을: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고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병: 우리를 지도하는 대지 윤리는 하나의 생명 메커니즘으로서 대지 이미지의 존재를 전제한다. 대지는 단지 흙이 아니다. 대지는 태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나) 

- ① A, F: 인간 이외의 생명체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E: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④ C: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도덕의식을 대지까지 확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D: 무생물은 이익 관심 없이 고유의 선을 지니는 존재임을 간과한다.

192][22 ebs 수특] 틀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인간과 인간 아닌 모두의 건전한 이익을 해치고 모든 존재가 즐겁게 생존할 수 있는 잠재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 운동은 환경 윤리보다는 실재를 더 중시해야 한다. 생태적인 큰 자아를 통해 실재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적이고 미적으로 엄격한 환경 윤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 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생태계의 살아 있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다.
- ② 더 나은 삶의 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정치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
- ③ 인간의 이익 증진과 자연 보호가 양립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④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가치는 인간에 대한 유용성과는 무관하다.
- ⑤ 지구상 생명 형태들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193][22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기존 윤리 이론의 전제와 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문제 상황들로 우리는 윤리적 공백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차원의 윤리학이 필요하다. 새로운 차원의 윤리학은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책임은 미래의 행위를 전망하는 의무로서의 책임, 미래 사태에 대한 책임이다.

- 보기
- ㄱ. 새로운 윤리학은 계약적 책임을 바탕으로 성립해야 한다.
 - ㄴ.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는 행위의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ㄷ. 책임의 대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확장해야 한다.
 - ㄹ. 생명에 대한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5-1

예술과 윤리(수특 12강)

zola 문제

194[19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갑: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려 하지 눈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 귀가 즐거이 여기는 것들, 입이 달게 여기는 것들, 몸이 편히 여기는 것들을 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과 같은 것들은 백성들이 입고 먹는 재화를 축내고 빼앗기 때문에 어진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을: 인(仁)의 실질적인 내용은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며 의(義)의 실질적인 내용은 손윗사람을 잘 따르는 것이다. 악(樂)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게 되면 샘솟듯 생겨나게 되고, 한번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만둘 수 없게 되고, 그만둘 수 없게 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을 구르고 손을 저으며 춤추게 될 것이다.

보기

- ㄱ. 갑은 통치자의 예술 활동이 백성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예술 활동이 사회와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음악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음악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본다.

195[17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가는 실천에 의해 사회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긍정하는 대신 부정과 파괴를 일삼는 예술은 나쁜 예술로 여겨져 왔다. 나쁜 예술은 일반적으로 '저속한 작품(kitsch)'이라 불리는 것이거나 '나쁜 취미(bad taste)'의 산물이다. 저급한 대중적 호소에 목적을 두는 예술은 순수한 예술 작품에 비해 감동과 울림이 뒤떨어진다. 나쁜 취미에 기초한 예술은 사회성이 배제된 개인적 유희의 산물로 개인과 사회를 타락의 길로 몰아갈 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중들은 번덕스럽고 오락적인 것을 좋아하며, 고급스러운 것을 원하기보다 저속하거나 나쁜 취미의 산물을 더 원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러한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예술가들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② 예술의 대중화가 작품의 질을 향상시킴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예술의 목적은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 ④ 예술은 대중들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예술의 대중화가 인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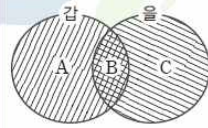
196[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쾌락은 항상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이해 관심(사적 욕구)과 무관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봄, 즉 관조함이 미적 판단을 순수하게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 아름답다는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 ㄱ.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ㄴ. 아름다움과 도덕성은 모두 이해 관심과 무관하다.
- ㄷ. 아름다움의 가치는 효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ㄹ.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 도덕적 목적을 추구한다.

197[20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가)	<p>갑: 예술가는 종교적 자각을 담은 감정의 전달에 주력해야 한다. 타인이 이 감정을 경험해 같은 심경에 감염되고 결합을 느낄 때,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예술이다. 따라서 감염성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술의 특징일 뿐 아니라, 그 정도는 예술의 가치를 재는 유일한 척도이다.</p> <p>을: 미(美)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할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게 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① A: 예술은 예술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② B: 예술 작품은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③ B: 예술 작품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 ④ C: 예술은 오로지 미(美)의 영역에만 관계되므로 선회는 무관하다.
- ⑤ C: 예술은 독립적 영역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한다.

198[21 ebs 수특] 틀린 것을 골라야 함.

갑: 음악이 종교에서 연주되어 군주와 신하, 아래위가 다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삼가지 않을 수 없고, 집안에서 부자와 형제가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음악은 하나 되는 데를 살피며 부드럽게 조화로운 소리를 정하는 것이다.

을: 임금과 대신들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 연주를 일삼는다면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 임금과 대신들이 큰 종을 두드리고 북을 치고 금(琴)과 슬(瑟)을 뜯고 우(竽)와 생(笙)을 불며 춤이나 추고 있다면 백성들은 입고 먹을 재물을 얻을 수가 없다.

- ① 갑은 음악이 예(禮)의 규범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음악이 백성들의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 ③ 갑은 율과 달리 음악을 통해 예악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음악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음악의 가치를 백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199][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할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을: 예술적인 것이란 그것의 실용적인 용도와는 상관없이 아름답고 섬세한 형태, 경이로운 디자인이나 고상한 색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 ① 갑은 도덕성과 상징 관계에 있는 미가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예술의 본질을 예술 자체의 형식이 아닌 예술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예술이 인간의 도덕적 삶을 고양할 때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④ 을은 예술을 외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미와 선의 판단 형식이 유사하므로 미와 도덕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본다.

200][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예술을 상품화하는 문화 산업은 어떤 작품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애써서 고쳐 놓고 작품과 감상자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자 열망한다. 그들은 생활과 예술 사이의 거리감은 수치스러운 것이므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가 예술을 일종의 소비재로 만드는 과정의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예술품에 대한 험값의 대량 판매는 예전에는 접근이 거부되었던 영역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 조건 아래에서는 교양의 상실과 야만적인 무질서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처럼 문화를 생산과 판매의 대상으로 하는 문화 산업은 예술의 사용 가치를 교환 가치로 대체시키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발전을 방해하여 대중을 순종적인 집단으로 재조직한다.

| 보기 |

- ㄱ. 문화 산업으로 예술의 교환 가치적 특성은 약화되는가?
- ㄴ. 대중 예술의 향유는 사람들의 정치적 각성을 방해하는가?
- ㄷ. 문화 산업은 사람들을 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가?
- ㄹ. 문화 산업은 예술을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가?

201][22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셈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생산물로 채워진다. 소비자가 직접 분류할 무언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생산자들이 소비자를 위해 그러한 분류를 다 끝내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 유형의 인기 가요나 인기 배우, 영화들이 돌고 돌지만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오락물의 내용들도 길보기에는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화 없는 반복일 뿐이며, 세부 사항들만 대체 가능하다. 문화 산업은 그들의 소비자에 대해 자신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기만한다. 문화 산업은 자신이 행하는 기만이 욕구의 충족인 양 소비자를 설득하려 들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문화 산업이 무엇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한다.

| 보기 |

- ㄱ.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여가 시간에도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 ㄴ. 문화 산업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ㄷ. 문화 산업은 문화 생산물을 소량 생산하여 상품의 희소성을 높이려 한다.
- ㄹ. 문화 산업에서는 예술 작품이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비평은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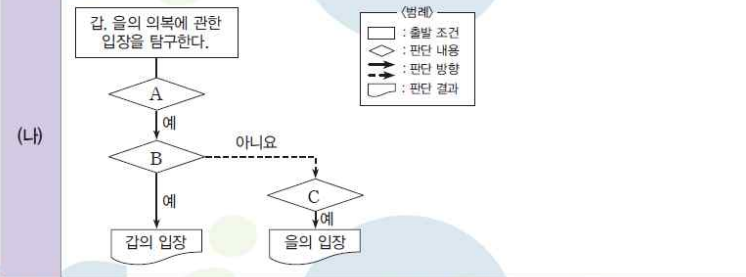
5-2

의식주와 사회 윤리(수특 13강)

zola 문제

202)[17 ebs 수특]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옷과 장식을 같은 것들에 대한 사치와 허영은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그들을 먹여살린다. 따라서 사색과 허풍의 바보같은 거만함은 먹고 입는 것에 번덕을 부리게 하는 우스꽝스러운 악덕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덕이 된다.
 을: 유토피아에서는 모두가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옷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유토피아인들은 의복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약하고, 작업복은 가족으로 할당하게 만들어 7년을 입는다. 의복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탐욕을 악덕으로 여기고 검소와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보기
- ㉠. A: 일상생활에서 의복의 필요와 가치를 인정하는가?
 - ㉡. B: 자존심과 허영심의 충족을 위한 의복 소비도 인정하는가?
 - ㉢. B: 동물에게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의복 소비를 지양해야 하는가?
 - ㉣. C: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의복 소비를 권장하는가?

203)[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축함은 그 자체가 이미 거주함이다. 건축함은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죽을 자로서 매일 매일 거주한다는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실존적 삶 전체를 돌보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건축함인 것이다. 죽을 자로서 인간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음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계 내에 거주한다는 뜻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와 이를 더욱 더 가치 있고 본래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함이 늘 함께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① 거주함은 인간의 사유함과 분리될 수 없는가?
- ② 거주함은 건축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 ③ 건축함은 근원적으로 거주함의 의미를 지니는가?
- ④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가?
- ⑤ 거주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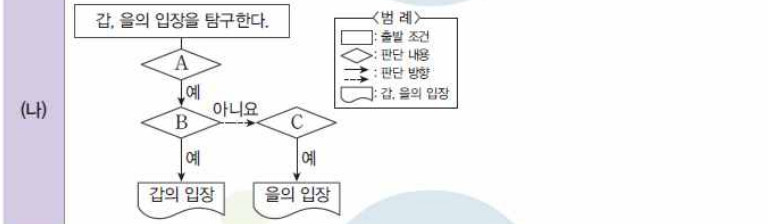
204)[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이 니가 되어라!

땅을 구원하는 가운데, 하늘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신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거주함은 이 사방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사방을 소중히 보살핀다. 그러나 사물들은 그것들 자신이 사물들로서 그것들의 본질 안에 초연히 내맡겨질 때에만 사방을 간직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죽을 자들이 성장하는 사물들을 돌보고 보호함으로써, 또한 성장하지 않는 사물들을 제대로 고유하게 견립함으로써 일어난다. ... (중략) ... 거주함의 본래적인 곤경은 주택이 모자란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죽을 자들이 거주함의 본질을 항상 다시금 구한다는 사실에, 즉 죽을 자들이 거주함을 비로소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인간이 거주 본래적인 곤경을 아직도 바로 그 곤경으로서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인간의 고향 상실의 성립하고 있다면 어찌될 것인가? 고향 상실은 올바르게 숙고되고, 훌륭하게 간직된다면, 죽을 자들을 거주함 안으로 부르는 유일한 말 건넬이다.

입장	너
거주함은 사물의 성장을 돌보고 보살핌을 의미한다.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집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사방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존재이다.	
현대인들은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205)[19 ebs 수특]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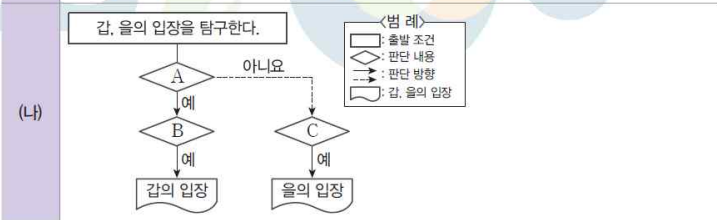
(가) 갑: 올바른 소비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만족과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올바른 소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예산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올바른 소비 방법의 한 예이다.
 을: 올바른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상품을 구입할 때 단지 그 상품 하나의 가격이나 품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정바구니 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생태계나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이다.



- 보기
- ㉠. A: 과시 소비와 모방 소비를 삼가는 것은 올바른 소비인가?
 - ㉡. B: 올바른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 ㉢. C: 올바른 소비는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가?
 - ㉣. C: 올바른 소비는 항상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것인가?

206)[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가) 갑: 소비 행위를 할 때에는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자 대비 산출 가치의 최대화'이다. 가장 적은 돈을 소비하여 가장 활용 가치가 큰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을: 인간의 경제 활동은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비 행위를 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인간과 동물, 환경을 착취하고 해를 끼치는 비윤리적 상품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보기
- ㄱ. A: 자신의 소득 범위를 넘어서는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 ㄴ. A: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소비가 가장 바람직한가?
 - ㄷ. B: 개인의 선호보다 공공성을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ㄹ. C: 상품 생산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소비를 해야 하는가?

207)[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모방이란 집단이 개인에게 행위 양식을 전수해 주고 선택의 고통과 선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그 집단 내부에 개인의 존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현상이다. 유행은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시키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되면서 현재의 유행은 어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소멸된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해 준다.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에서 특별한 것이다.

- ① 유행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의미한다.
- ② 유행은 개인들의 심리적인 요인과 독립해서 발생한다.
- ③ 유행은 계층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산물이다.
- ④ 유행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 ⑤ 개인은 유행을 따름으로써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갖는다.

208)[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공간에서 누리는 참다운 삶인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요구가 있다. 첫째 요구는 공간 내의 일정 장소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단단히 토대를 다지고 안식을 주는 개인 공간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요구는 내부 공간에 자신을 가두는 위험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위협적이고 위험한 외부 공간도 온전히 삶 속에 포함하고, 인간의 삶이 실현되는 유일한 바탕인 내부와 외부 공간의 긴장을 이겨 낼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요구는 위협적인 외부 공간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자기 집의 굳건함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극복하고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큰 공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구에 응할 때 인간은 공간에서 참된 거주를 실현하며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 ① 거주는 집 속에 공간을 점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 ② 거주는 공간 속의 임의의 위치에 우연히 머무르는 일시적인 체류이다.
- ③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로부터 안전한 영역을 가져야 한다.
- ④ 거주는 위협적인 외부 공간과 단절하고 집에 집착하여 머무르는 것이다.
- ⑤ 거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참된 거주를 실현할 수 있다.

5-3

다문화와 사회 윤리 윤리(수특 13강)

zola 문제

209[19 ebs 수특] 아래 두 문제를 푸셈!

갑: 어떤 사회에 통일된 문화가 없다면 구성 집단 간의 결속력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서 단일한 언어, 단일한 문화 전통, 단일한 교육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류의 문화적 전통을 주류 문화 속에 녹여 넣고 소수자들이 다수자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을: 사회에 다양성이 없으면 그 사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소외되거나 억압되는 집단이 있다면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전통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동등하게 교육해야 한다. 나아가 이주민들이 사회 속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갑은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의 단일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사회 통합을 위해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간 결속을 위해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4 다음 글의 입장에서 갑, 을 각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의 주류 및 다수자의 우월성을 인정하되 비주류 및 소수자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오랜 역사를 공유한 주류 집단의 문화적 단일성과 자부심을 결속의 주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유입된 소수 집단의 문화는 기존의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갑에 대한 비판	을에 대한 비판
①	기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소수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 사회적 통합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②	기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중심 문화가 없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③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면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중심 문화가 없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④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면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엄격한 단일 문화주의는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⑤	단일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소수자의 문화를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수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 사회적 통합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210[18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각 문화가 지니는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그 문화가 윤리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하겠지만, 윤리적 평가를 내릴 때에는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힌두 공동체에서 행해지던,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서 죽어야 하는 관습인 사티(sati)와 같은 비인간적인 관습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을: 윤리도 문화의 일부이므로 문화가 상대적이면 윤리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문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역사적 맥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각기 고유한 내적 논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문화에서 나타난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주체가 속한 특정 문화 체계의 잣대에 의거해서만 평가되어야 합니다.

갑: 나는 당신의 견해가 ㉠ 고 생각합니다.

- 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각국마다 다양한 윤리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국의 문화를 평가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④ 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보편 윤리를 기준으로 문화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11[15 ebs 수특, 주관식] (가), (나)의 관점에서 <사례>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 내릴 적절한 평가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커다랗고 동그란 샐러드 그릇 안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각자 고유한 맛을 지키면서도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여러 민족의 문화가 동등함과 다양성을 지키면서 공존해야 합니다.

(나) 각 집단의 문화를 한데 모아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갈등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 례>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과 이주 노동자들의 증가로 다문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 2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센터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주류 문화에의 동화를 위해 해당 여성들에 대한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예절 교실, 한국어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 보 기 >

- ㄱ. (가):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 수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ㄴ. (가): 타자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 타자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일이다.
- ㄷ. (나):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의 대등한 강조로 소모적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 ㄹ. (나): 사회 구성원 다수가 따르는 문화를 제공하지 않아 윤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212)[18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소수 집단의 언어, 문화, 종교 등의 문화적 차이가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류 문화와의 동질화를 추구해야 한다.

을: 다양한 문화가 지니는 각기 다른 특성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기>

- ㄱ. 갑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강조한다.
- ㄴ. 을은 다양한 문화의 이질성 보존을 지향한다.
- ㄷ. 갑은 동화주의를, 을은 다문화주의를 추구한다.
- ㄹ. 갑, 을은 모두 비주류 문화의 보존을 강조한다.

213)[20 ebs 수특]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소수 집단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려는 다문화 정책은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국가로 통합되는 정의로운 길을 보장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 민족, 원주민, 이민자 등과 같은 여러 소수 집단의 존재에 대해 섬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 집단 스스로 문화적 고립에서 탈피해 자발적으로 국가 통합을 돕도록 할 수 있다.

을: 소수 집단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려는 다문화 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에게 국가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집단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재분배의 체계에 혼동을 가져와 사회 통합의 기반인 민주적 연대감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나)

- ① A: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가?
- ② B: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위배되는가?
- ③ B: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 인정이 사회 통합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는가?
- ④ C: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권의 보장보다 문화적 차이의 인정이 더 중요한가?
- ⑤ C: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훼손할 수 있는가?

214)[21 ebs 수특] 어떻게 푸는 지 알죠? 푸셈!

(가) 갑: 국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령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

을: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하여 이에 적응해야 한다.

병: 문화 집단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등한 입장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나)

- ① A, C: 문화 단일성을 전제로 문화 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F: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D: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위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E: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⑤ D, F: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지위로 공존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215)[22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가) 갑: 각기 다른 재료들이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도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여러 민족의 문화가 평등하게 조화되어 다양함이 공존해야 한다.

을: 국가가 주된 내용물이지만 고령이 첨가됨으로써 맛이 풍성해지듯이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비주류 문화와 공존해야 한다.

병: 다양한 물질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이 다양한 소수 문화를 섞어 주류 문화 중심으로 융합하여 통일된 하나의 문화를 가져야 한다.

(나)

- 보기
- ㄱ. A: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정체성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 ㄴ. B: 사회 통합을 위해 주류 문화에 비주류 문화가 융합되어야 한다.
 - ㄷ. C: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에 위계가 존재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ㄹ. D: 단일한 문화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부정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5-4

종교(수특 13강)

Zola Guide 잘 안 틀리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움. 엘리아데는 기술 제시문을 문장 단위로 잘 공부해 둘 것. 함정 선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

zola 문제

216[17 ebs 수특] 감이 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 신은 선하며 완전한 지혜를 갖춘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이 우리에게 수많은 행위 중 어떤 행위만을 명령하는 것은 그 행위가 옳기 때문입니다. 신은 지혜롭기 때문에 정직함이 속임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음: 아닙니다. 올바른 행위는 사회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옳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옳은 행위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신의 명령이라는 점을 제쳐 두면 정직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 ① 신의 명령과 윤리가 무관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② 신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보다 우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신이 명령한 모든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신의 의지와 별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신은 지혜를 활용해 옳은 행위만을 명령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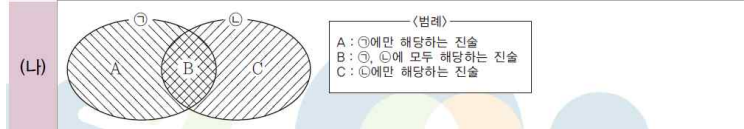
217[16 ebs 수특] 다음 사상가가 긍정할 내용을 있는 대로 몽땅 골라.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 ①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공존한다.
- ②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 ③ 인간은 체험을 통해 신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
- ④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 ⑤ 종교는 세계의 근원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218[16 ebs 수특] (가)의 ㉠, ㉡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됨!

- (가) ㉠ -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나 양심에 기초한 윤리 규범으로,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강조한다.
 ㉡ - 종교의 교리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윤리 규범으로, 같은 종교 집단 내에서 강제력이 높다.



- < 보기 >
 가. A : 인간에게 올바른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나. B :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관심을 가진다.
 다. B : 특정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르. C : 윤리 규범의 근거를 주로 경전의 내용에서 찾는다.

219[16 ebs 수특] 감, 음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은 신성성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하며, 그의 생명은 우주적 생명과 일치하게 된다.
 음: 무의식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 유아기의 무력감과 압도적인 운명의 힘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그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동경에서 종교적 욕구가 유래한 것이다.

- ① 감: 신성함은 인간을 포함한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 ② 감: 신은 불완전한 인간이 심리적 필요에 따라 창조한 것이다.
- ③ 음: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이다.
- ④ 음: 인간은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 실존하는 신을 인식하게 된다.
- ⑤ 감, 음: 종교는 인간의 소망을 성취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220[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정상인을 골라!

성스러움이 현현(顯現)함으로써 사물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후에도 우주적인 환경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도 의연히 한 개의 돌이다. 즉 겉으로 볼 때는 그 돌을 다른 일반적인 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돌이 성스러운 것으로서 계시되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의 돌의 현존이 초자연적 실재로 변한다. 바꿔 말하면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때 우주는 전체가 성현(聖顯)이 되는 것이다.

학생	감	음	병	정	무
입장					
신은 이 세계 그 자체이자 자연이다.	v			v	v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		v		v	v
성스러움이 계시된 자연물은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자연물이 아니다.	v		v		v
인간은 본래 종교적 존재이며, 이 세계는 생(聖)과 속(俗)이 공존한다.		v	v	v	

221)[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은 세계 안에서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 양식을 취한다. 종교적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한지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그림으로써 이 세계를 성화하고 또 그것을 실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성스러운 것,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그는 생명이 성스러운 것에 기원을 가지며 인간 존재는 종교적인 정도에 따라, 즉 실재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모든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성을 거절하며 실재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심지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비종교적 인간은 새로운 실존적 상황을 상정한다. 즉 그는 그 자신을 오로지 역사의 주제 및 동인으로만 간주하며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절한다.

- ① 종교적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절대적 실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 ②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 ③ 비종교적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으며 성화된 사물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다.
- ④ 종교적 인간은 신들의 행위를 모방하고 초월성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 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자연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222)[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셈.

다른 종교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종교적 소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새로운 총체 시각이 요구되고 있고, 새로운 길이 모색되어야 하며, 종교 사이의 새로운 개방, 운동 그리고 제휴가 시도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개별 인간, 교회 그리고 종교를 위해, 그리고 종교의 화해를 위해 모든 차원에 걸친 온갖 형태의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보기

- ㄱ. 세계의 평화를 위해 종교의 평화는 필수적이다.
- ㄴ. 종교 간 대화 없이는 종교 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 ㄷ. 단일 종교를 통해 종교 간의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 ㄹ. 유일신을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6-1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 윤리(수특 14강)

zola 풀이!

223)[20 ebs 수특, 주관식]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 상황에서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님들은 코끼리를 설명할 때 제각기 편소리를 한다. 어느 장님도 코끼리의 진면목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장님도 코끼리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성(佛性)을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어느 입장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모든 입장을 떠나서도 안 된다. • 불교 경전의 부분을 통합하여 온갖 흐름의 한 맛[一味]으로 돌아가게 하고, 부처의 뜻이 지극히 공정함[至公]을 전개하여 백가[百家]의 못 주장을 화회(和會)시킨다.
(나)	<p>오늘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다 보니 다양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경우 각각 자신의 관점과 주장은 옳고 타자의 관점과 주장은 틀렸다고 말한다. 때로는 상대에 대하여 부분적인 긍정을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p>

보기

- ㄱ. 자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 ㄴ. 서로 다른 의견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ㄷ.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나 설명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ㄹ. 부분에 대한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합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224)[14 ebs 수특, 윤사 활용, 주관식] 다음은 어떤 사상가의 기본 관점과 주장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기본관점	같은 속에 이미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이미 같음이 투입되어 있기에 독립적 실체는 없고 거울처럼 각자가 다른 것을 반조(返照)할 뿐이다.
주장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에서 둘[二]이 아니고, 진실됨과 망령됨의 이문(二門)도 다를 수가 없다. 고로 일(-)이라고 한다. 일이라 함은 이처(二處)가 없고, 모든 법의 진실이 있는 것이며, 허공과 같지 않고 그 본성이 스스로 신통한 이해력을 지니고 있기에 마음[心]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찌 하나[-]가 있을 수 있는가? 일(-)도 없는데 누가 마음이라고 말하는가?
분석	(가)

<보기>

- ㄱ.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여 하나로 동일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 ㄴ. 모든 경론(經論)의 근원인 일심(一心)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 ㄷ. 화쟁(和諍)을 위해 다름과 같음을 대립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 ㄹ. 참과 거짓과 같은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할 경지를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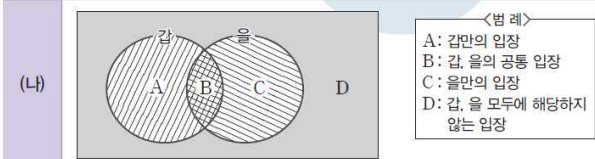
225)[16-7교-3+18-7교-6+15 ebs 수특 윤사, 주관식] 밑줄 친 '그'의 사상적 입장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그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암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네 가지 유형의 타당성 요구를 전제한다. 첫째는 화자가 발언한 것이 이해 가능한가라는 '이해 가능성'의 요구인데, 이것은 나머지 세 가지 타당성 요구의 기본 전제이다. 둘째는 그 발언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내용이 참인가라는 진술의 '진리성' 요구이고, 셋째는 화자의 규범적 발언이 승인된 규범적 맥락 속에서 정당한가라는 언어 행위의 '정당성'의 요구이다. 넷째는 화자의 주관적 표현이 진실한가라는 표현의 '진실성'의 요구이다.

- ① 다원화 시대에 보편타당한 규범의 확립은 가능하지 않다.
- ② 행위 규범은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 ③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특성을 모른다고 가정된다.
- ④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예상되는 규범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표현하는 주장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 ⑥ 개인적인 욕구, 희망 사항을 제외하고 발언해야 한다.
- ⑦ 공론장에서는 타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26)[20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나는 논증 규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의 원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 표현을 제안 하였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을: 나의 준칙이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나 또한 비할 수 있도록 오직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어려움을 빠져나오라'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내가 기꺼이 용납할 것인가?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하라'가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하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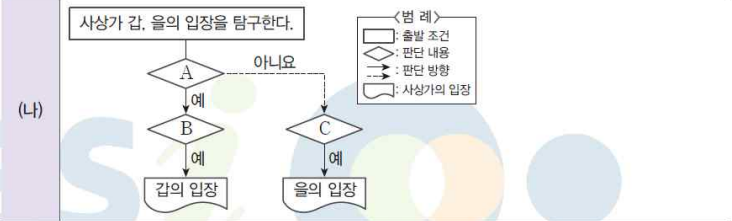


보기

- ㄱ. A: 개인의 도덕 판단만으로는 타당한 규범의 성립이 어려우므로 담론이 필요하다.
- ㄴ. B: 대화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규범은 모두 보편타당하다.
- ㄷ. C: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과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 ㄹ. D: 모든 타당한 도덕규범은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다.

227)[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가) 갑: 실천적 담론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타당 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 작용이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을: 명령은 법칙 외에 오로지 이 법칙에 적합해야 한다는 준칙의 필연성만을 함유하지만, 법칙은 그 것이 제한받았던 아무런 조건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이 법칙의 일반의 보 편성뿐이다. 그러므로 정언 명령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 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 하라.'는 것이다.



보기

- ㄱ. A: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보편타당한 규범을 도출해야 하는가?
- ㄴ. B: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되어야만 정당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 ㄷ. C: 대화 참여자들은 개인의 욕구를 배제한 채 진실하게 입장을 말해야 하는가?
- ㄹ. C: 도덕 법칙은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 명령인가?

228)[21 ebs 수특, 주관식] 다 고르세용~

담화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이해의 극복과 이성적으로 동기 지워진 신 뢰라는 공통성 덕분에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은 참여자들을 서로 결합합니다. 즉 담화의 참여자들은 서로 논증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쌍방이 진실한 자기표현을 하 고 있다고 확인해야 하며, 또한 공동으로 진리를 추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 니다.




보기

- ㄱ. 담론 참여자는 상대의 이해(理解)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ㄴ. 시민 사회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규범만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 ㄷ. 정당한 담론의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
- ㄹ. 분화되고 복잡화된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담론에는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야 한다.

229)[21 ebs 수특] 고르셈.

(가) 갑: 군자는 올바른 도로로 일을 할 때 기뻐하며,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고 화합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것은 없다. 소인은 올바른 도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누구하고나 쉽게 같이 지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을: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작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남의 눈치만 본다.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에 말미암게 된다. 그래서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그런 것을 자연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A: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잘 가려야 한다.
- ② A: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 ③ B: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도덕적 원칙을 버려야 한다.
- ④ B: 일체의 분별과 차별이 없는 소요유(逍遙遊)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C: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

230)[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한마음의 근원은 있고 없음을 떠나서 홀로 깨닫는다. 그리고 불법(佛法)의 바다는 진속(眞俗)을 아우르며 고요하다. 둘을 아울러서도 하나가 아니고 홀로 깨닫는다. 하나가 아니면 둘을 아울러서도, 참된 것이 아니라 하여 세속적인 것이 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해서 참된 것이 되지도 않는다.

<사례>
 A는 마을의 개발 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과 이에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이 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다수의 의사를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하세요.
- ② 시비(是非)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따라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각자가 지닌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 포용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④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화와 화해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마을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6-2

국제관계와 국제분쟁(수특 15강)

☞ Zola Guide 국제관계론의 구성주의와 국제분쟁(현턴턴과 월러의 견해)은 교과서에는 있으나 올해 ebs 수특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2차 생운(17학년도~20학년도) 시절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zola 풀어!

231)[13 ebs 수특] 밑줄 친 ㉠에 근거한 판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편적인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국가 지도자들은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과 경애, 더 넓은 이익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전통적인 도덕성에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국가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덕목이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성과 신중성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도덕성을 배워야 한다.

- ① 국제 사회는 하나의 인류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
- ② 국제 관계의 구조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 ③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국가 이익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외교 정책이 옳은 정책이다.
- 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232)[14 ebs 수특] 다음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국제 정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혼돈 상태의 국제 사회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행복,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우월한 힘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제 평화는 세력 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			√	√
이기적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는 이기적이다.	√	√		√	
국가들 간에 호혜적 대화와 평화가 가능하다.		√	√		√
국제기구, 국제법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	√	√

233)[14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

갑 : 국가 이익 그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다. 국가 이익은 그 자체로서 다른 모든 도덕적 고려를 압도할 힘과 설득력을 지니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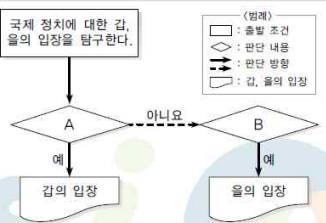
을 : 인간은 이성적이며 이성적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도 국제 사회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국가 간의 전쟁은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을 일치시키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근본 조건이다.

<보기>

- ㄱ. 국제적 갈등은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가?
- ㄴ. 국제 평화는 세력 균형을 통해 달성되는가?
- ㄷ.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 ㄹ. 국제 사회는 무질서와 혼돈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가?

234)[15 ebs 수특]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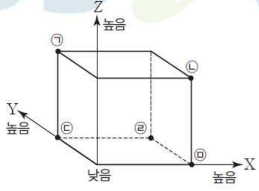
(가) 갑: 국제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은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 정치적 현상은 다음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을: 평화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규제하는 국제적 제도의 창출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안보는 세력 균형이 아니라 힘을 가진 국제기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나) 

- ① A : 국제 사회에서의 평화 실현은 불가능한가?
- ② A : 국제 사회는 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 ③ A : 국가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가?
- ④ B :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 ⑤ B : 국제 평화를 위해 모든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가?

235)[21 ebs 수특]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고르셈.

갑: 국제 정치는 국가 간의 지속적인 권력 투쟁과 갈등의 연속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정치는 권력과 강압으로 구성된 인간 행위의 영역이므로, 국가는 자기 이익과 생존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는 무정부 상태인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닌다.
을: 국제 정치는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정치 활동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다. 세계 평화는 이와 같은 상호 협력과 제도적 보장을 통해 가능하며, 국가들은 이러한 규범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X: 윤리를 국가들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
Y: 힘의 균형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Z: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236)[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특별한 사회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국제 무대에서의 권력 투쟁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일 뿐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결정적 논거는 국내 정치의 본질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제 정치의 본질은 국내 정치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다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벌어지는 국내적·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특히 남을 지배하려는 경향은 가족을 위해서 친목 단체와 전문 조직체 그리고 지방 정치 기구와 민주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모인 모든 결합체에서 관찰되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권력 서열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물리치고 기존 권력 서열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현상 유지 정책과 제국주의 정책 사이의 갈등이 그러한 식으로 생겨납니다.



- ①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 ②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 ③ 국제 정치에서의 권력 투쟁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 ④ 모든 사회적 관계는 배려와 상호 존중을 통해 유지된다.
- ⑤ 민주 국가의 정치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권력의 평등한 분배이다.

237)[22 ebs 수특, 주관식] 모두 고르셈.

(가) 인간의 본능은 힘과 권력을 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욕망을 제어할 국제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은 이런 정글과 같은 냉엄한 국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을 최대의 국익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 국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도덕적으로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고,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의 나쁜 행동은 인간의 주어진 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게 만드는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잘못된 제도나 구조의 문제는 국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된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보기

- ㉠. (가): 국내 사회의 공권력과 같은 합법적인 힘이 국제 사회에도 존재한다.
- ㉡. (가): 다른 나라의 도덕성에 호소해서 자국의 생존을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 ㉢. (나): 국제 사회 분쟁의 주요 원인에는 국가 간 오히려 국제적 제도의 미비가 있다.
- ㉣. (가), (나): 국가 간의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6-3

국제평화(수특 15강)

zola 풀어라!!

238)[20 ebs 수특, 주관식]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애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이다. 환대(歡待)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이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로, 교제의 권리이다.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에 의해 그런 권리를 갖는다.

<사례>

○○ 국가에 잠시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자연환경, 풍습, 제도 등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례가 전혀 없던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보기

- ㄱ.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맞추어 외국인을 대우해야 한다.
- ㄴ. 박애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
- ㄷ. 외국인은 영구 거주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 ㄹ. 외국인은 다른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239)[15 ebs 수특 활용]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가 세계 평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있는 대로 골라.(1개~모두까지)

예비조항(일부)	* 상비군은 폐지하라. 말 좀 들어라! * 어떠한 독립 국가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확정조항(일부)	* 모든 국가의 시민적 체계는 공화정이어야 한다네~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여야 한다네~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네~

- ① 지혜와 덕을 갖춘 왕이 다스리는 전제정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②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가?
- ③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 실현이 가능한가?
- ④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⑤ 영구적인 세계 평화 달성은 불가능한가?
- ⑥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240)[18 ebs 수특]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다음 사상가가 주장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하며, 그리고 강요 대신 대화를, 분리 대신 통합을,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한다.

㉡ 학생 답안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비교하면, 소극적 평화는 ㉠ 전쟁, 테러, 폭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 빈곤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에 ㉢ 적극적 평화는 문화적·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며, ㉣ 차별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는 모두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넓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41)[20 ebs 수특 활용,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있는 대로 골라.

-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고,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인 폭력으로 향하는 인과적 흐름은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는 우리를 착취나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도록, 또는 그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전도하고 가르치고 혼계하며 충동질하고 무디게 한다.

- ① 인간 존엄성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② 세계의 모든 전쟁이 종식됨과 동시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 ③ 정치·경제 분야에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④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⑤ 인간 안보를 확장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242)[21 ebs 수특] 골라!

갑: 모든 정치가들은 국가 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런 철칙은 국가들의 관계에 적용된다. 국제 관계는 무한한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약속강식의 논리를 따른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약소국들은 강대국과 동맹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으려 한다.
을: 가장 높은 수준의 임법적이고 도덕적인 힘은 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성은 절대적으로 권리의 차원에서 전쟁을 배격하고 의무의 차원에서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 이것은 국가 간의 합의 혹은 협정이 국가 간의 연합 혹은 연맹을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맹은 구성 국가들의 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영속적인 평화 상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갑은 국가 간 평화가 힘의 사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국가 간의 평화 조약만으로 영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국제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도 보편적 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43)[22 ebs 수특, 주관식]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모두 고르세요~

영구 평화를 위해서 각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 체제여야 한다. 이것은 첫째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리이고, 둘째는 모든 구성원이 유일하면서도 공통적인 입법에 시민으로서 종속된다는 제 원칙이며, 셋째는 모든 구성원이 국민으로서 평등하다는 법칙이다.

【 보기 】

- ㄱ. 평화란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의무인가?
- ㄴ. 법률은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
- ㄷ. 국민 국가를 해체하고 단일한 세계 정부를 건설해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 ㄹ.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지닌 통치자가 다스리는 형태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244)[22 ebs 수특, 주관식] 모두 골라.

직접적 폭력은 사람, 사회, 세계의 공간들 속에서 정의된 것이며,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거나 내부 집단들에 의해 의도된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사람, 사회와 세계의 공간들에 조성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비의도적이다. 문화적 폭력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폭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않게 한다.

【 보기 】

- ㄱ.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모두 의도된 형태의 폭력이다.
- ㄷ. 구조적 폭력은 정치와 경제에서 억압과 착취의 형태로 나타난다.
- ㄹ.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

245)[19 ebs 수특] 골라!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 안보 개념의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다시 '직접적이고 적극적 평화',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이고 적극적 평화'로 구분됩니다. 직접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나와 타자 간에 갖는 직접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공동체적이고 간접적인 평화입니다. 문화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종교, 법, 사상 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나아가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해야 합니다.



【 보기 】

- ㄱ. 평화는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
- ㄴ. 억압과 착취의 사회 구조를 자유와 평등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 ㄷ. 의도되지 않은 사회적 분열과 소외를 폭력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 ㄹ.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246)[18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약이란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닌 적대 행위의 한낱 일시적 중지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 되며, 따라서 '영구적'이란 단어를 덧붙이는 것조차 기만적인 수식어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① 평화란 모든 전쟁의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가?
- ②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의 확보가 중요한가?
- ③ 국가 간의 세력 균형만으로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가?
- ④ 평화를 위해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는가?
- ⑤ 평화적 방법으로 어떠한 독립 국가를 다른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6-4

해외원조(수특 15강)

zola 풀이!

247)[20 ebs 수특]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다른 조건이 모두 다 같다면, 국가가 자국민을 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머지, 어떤 한 나라에서 부유한 한 쌍이 극장에 가느라 쓰는 돈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쌍들이 한 해 동안 먹고사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사정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달러당 최대 효율을 얻는 방법을 추구하는 효율성 개념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은 우리 동포에 대해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효율의 크기로 볼 때 우리가 해외에 제공할 수 있는 선행의 양이 자국민을 돌볼 의무를 훨씬 압도한다고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또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본래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은 추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러한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가지지 않는다.

- ① 원조는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적으로 빈곤한 모든 국가에 지속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빈곤국에서 기어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개인들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48)[18 ebs 수특]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 국가가 복지를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원조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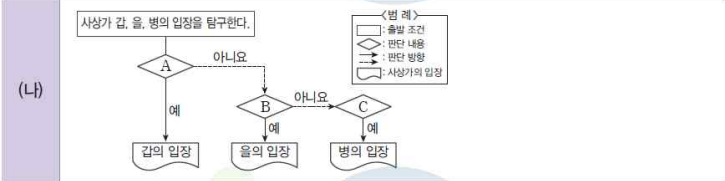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 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 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①	갑이 을에게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부를 평준화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갑이 병에게	개인에게 원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이 병에게	절대 빈곤국에 대한 원조는 부유한 국가의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병이 갑에게	원조에 필요한 비용 마련은 개인의 자선에 달려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⑤	병이 을에게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249)[20 ebs 수특, 주관식] 골라!

- (가) 갑: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 말의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을: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 데 손쉬운 비결은 없다. 그것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대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에 의해서 배제된다.
 병: 자신에게 얼마만큼 포기하도록 강요하느냐는, 우리가 막을 빈곤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유행에 맞는 옷, 값비싼 저녁, 더 큰 집, 화려한 자동차 등은 극단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 <보기>
- ㄱ. A: 원조를 의무가 아니라 선의를 베푸는 자선 행위로 보는가?
 - ㄴ. B: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빈곤국들을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가?
 - ㄷ. B: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조를 해야 하는가?
 - ㄹ. C: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를 하는 것은 도덕적인가?

250)[15 ebs 수특, 주관식] 해외 원조에 대한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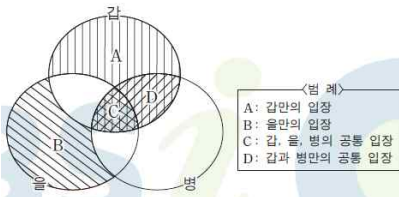
갑: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같은 공기 속에 살고 있고, 지구적 차원의 계획과 지식, 미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즉, 지역과 국가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지구와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을: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 그는 그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그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 <보기>
- ㄱ. 갑: 가난한 나라 사람에 대한 도움은 도덕적 의무이다.
 - ㄴ. 갑: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 ㄷ. 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가난한 나라를 지원해야 한다.
 - ㄹ. 을: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시민들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

[17 ebs 수특] 다음을 읽고 아래 두 문제를 푸세요~

갑: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막음으로써 그 일에 견줄 수 있는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대 다수의 순수한 만족의 최대화를 위해 그를 도와야 한다.
을: 자유 시장에서 각 개인의 선택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그것의 이전(移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아가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남을 돕는 일에도 적용된다.
병: 타인의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는 보편적인 윤리 원리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조의 의무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비롯되며, 그것이 이방인일지라도 돕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251) 위의 갑, 을, 병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 원조는 고통의 감소와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ㄴ. B: 원조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원의 재분배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ㄷ. C: 원조는 자기 희생의 자발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ㄹ. D: 원조는 인도적 차원의 윤리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52) 위의 갑, 을, 병의 입장에서 다음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즉 심각한 정치·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갑: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이 원조의 목적임을 모르고 있다.
 ② 을: 국민의 복지와 인권에 관심을 갖는 정부 수립이 원조의 목적임을 모르고 있다.
 ③ 병: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원조의 목적임을 모르고 있다.
 ④ 갑, 을: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나 감소가 원조의 목적임을 모르고 있다.
 ⑤ 갑, 병: 식량과 인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에 원조의 의무가 없음을 모르고 있다.

253)[21 ebs 수특, 주관식] 어떻게 푸는 지 아시죠? 있는 대로 골라요.

(가) 갑: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민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을: 소유물을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이전받았다면 우리는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 있다.
 병: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종족이나 국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나)

보기
 ㄱ. A: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의무임을 간과한다.
 ㄴ. F: 해외 원조의 목적이 국가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함임을 간과한다.
 ㄷ. B, D: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ㄹ. C, E: 해외 원조는 세계 시민주의 입장에서 개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임을 간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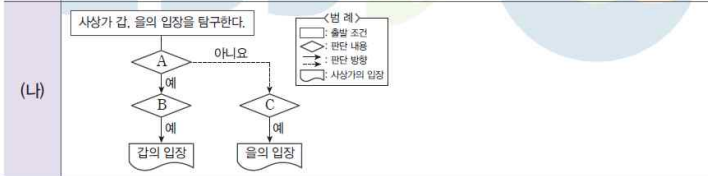
254)[21 ebs 수특] 골라.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윤리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 갖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년 소득 중 일부인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만 우리가 기부한다면, 세계가 전 지구적 빈곤을 제거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원조의 대상에서 민주적 국가의 빈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	√		√	
원조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한다.	√		√		√
원조는 상호 경제력을 고려하지 말고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		√	√
원조를 이행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익과 자국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	√

255)[22 ebs 수특] 있는 대로 고르면?

(가) 갑: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의 5%를 세계 빈곤 퇴치 활동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을: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도덕적 신념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보기

ㄱ. A: 개인이나 단체의 원조가 아니라 사회 체제의 변혁을 통해 빈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ㄴ. B: 친소(親疏)의 기준에 따라 원조의 순위를 선정해야 하는가?
 ㄷ. B: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는 행복감은 기부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ㄹ. C: 부의 증진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개선이 원조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256)[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고통받는 사회는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종 중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과학 기술 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 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① 질서 정연한 만민 간의 부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 ②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 무의 목표가 아니다.
- ③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도 질서 정연 한 사회가 될 수 있다.
- ④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사회적 문화 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⑤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는 최선의 방법은 불평등을 규제하 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zola amazing 정답!!

- 1) ㄴ, ㄷ
- 2) ①
- 3) ③
- 4) ㄱ, ㄴ, ㄹ
- 5) ③
- 6) 3번-①, 4번-②
- 7) ⑤
- 8) ④
- 9) ㄱ, ㄹ
- 10) ④
- 11) ㄴ, ㄷ
- 12) ㄱ
- 13) ㄱ, ㄹ

☞ Zola Guide 제시문이 '유학'이 아니라 '도가'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독해력이 필요함. ㄱ은 등 양 사상이면 동의할 내용임. ㄹ은 도가에만 해당함.

- 14) ①
- 15) ③
- 16) ③
- 17) ②
- 18) ③

☞ Zola Guide 바나나 강의에서 했던 선지임. 틀린 문은 바나나 강의 혹은 교재 다시 확인할 것! 문장(선지) 바나나에 나오는 내용임.

- 19) ①
- 20) ㄱ, ㄴ, ㄹ
- 21) 을
- 22) ③
- 23) ⑤
- 24) ㄴ, ㄷ
- 25) ③
- 26) ⑤
- 27) ④
- 28) ㄱ, ㄷ, ㄹ
- 29) ③
- 30) ④
- 31) ㄷ, ㄹ
- 32) ㄴ, ㄷ
- 33) ①
- 34) ⑤

35) ①	54%	8%	15%	4%	19%
36) ②	3%	68%	19%	7%	3%

- 37) ③
- 38) ③
- 39) ⑤
- 40) ②
- 41) ㄷ, ㄹ
- 42) 병
- 43) ①
- 44) ③
- 45) ㄷ, ㄹ
- 46) ②
- 47) ㄴ, ㄷ

☞ Zola Guide 당시 'ㄴ'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님들 머리 속의 지식이나 뇌피셜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없고, 제시문 '속'으로 들어가서 판단하길 바람. ㄴ은 제시문에서 그대로 확인 가능함. 눈 앞에 있는 제시 문 의 정답은 놓치는 제시문 바나나 지적용으로 적절한 문제임.

- 48) ②
 49) ③
 50) ⑤
 51) 가, 나, 다
 52) ②. 자료 분석형임. good~
 53) ④
 54) ②, ③, ④, ⑤, ⑥
 ✎ Zola Guide 주의할 문제임!
 55) ①
 56) ④
 57) 1, 2, 3
 58) ④ (⑥도 가능하지만 수능에서 다룰 가능성은 낮음)
 59) 다, 르
 60) ③
 ✎ Zola Guide 그림 속의 남자 얼굴 눈팅해 두션.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임.
 61) ①
 62) 나, 르
 63) ③
 64) ②
 65) 나, 다, 르
 66) 나, 다, 르
 67) 다, 르
 68) 가, 나, 르
 ✎ Zola Guide '인륜'인 관계와 '천륜'인 관계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수업 시간 때 얘기했음. 바나나가 되지 말 것!
 69) 나, 다
 ✎ Zola Guide '정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국어 사전 찾길 바람. 시험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남의 국어 및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수능까지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
 70) 가, 나
 71) ⑤
 72) ④
 73) 병
 74) 가, 다
 75) 다, 르
 76) 나, 르
 77) ③
 78) 가, 나, 르
 79) 갑
 80) ③
 81) ①
 82) 가, 나, 다
 83) ③
 84) 다, 르
 ✎ Zola Guide 사회적 자본을 주제로 한 기술 문제가 있으니 확인할 것. 바나나 강의에서 제시문-선지 간의 관계 유형 확인할 때 다루었던 문제임.
 85) ③
 86) 르
 87) ③
 ✎ Zola Guide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포털 사이트(네이버나 다음)의 사전 찾아보는 것을 권함. "‘경리사의’의 의미가 뭐예요?"라는 이만 질문을 커뮤에 올리는 건 남 공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88) ⑤
 89) 나, 다
 90) 갑
 91) ④
 92) 나, 르
 93) ④
 94) ①
 95) 모두 '알 수 없음'이 답임. 다른 답이 나왔다면 그건 남 뇌피셜임. 평가원은 남 뇌피셜에 관심없음.

- 96) 모두 0
 97) ④
 98) ②
 99) ②
 ✎ Zola Guide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독해 문제임.
 100) ③
 101) 정
 102) ④
 103) 가, 나, 다, 르
 104) 가, 다, 르
 105) ③
 106) 가, 나, 르
 107) ⑤
 108) 정
 109) 가, 다
 110) 다, 르
 111) 가, 나
 112) ③
 113) 가, 다, 르
 114) ②
 115) ①
 116) 가, 다, 르
 117) ⑤
 ✎ Zola Guide 틀린 분은 공리주의(주제 번호 1-3) 도덕 판단 기준과 '응용'을 다시 확인할 것.
 118) ③
 119) 가, 르
 120) 나, 다, 르
 121) ⑤
 122) 가, 르
 123) ②
 124) 다, 르
 125) ②
 126) ③
 127) ①
 128) ⑤
 129) ④
 130) ①
 131) 나, 르
 ✎ Zola Guide 고대 서양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행복=덕의 실현)임. 서양 윤리 이론(교재 번호 1-3)에서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132) ②

2%	74%	15%	4%	2%
----	-----	-----	----	----

 ✎ Zola Guide 같은 로크, 율은 루소임. but(벗뜨) 남들은 사회계약론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답은 도출됨.
 133) ④

8%	7%	16%	60%	9%
----	----	-----	-----	----

 ✎ Zola Guide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율은 로크임.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Zola가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남.
 134) ⑤

22%	14%	9%	12%	43%
-----	-----	----	-----	-----

 ✎ Zola Guide 같은 노자, 율은 목자, 병은 한비자임. 풀이법은 크게 두 가지임. (1) 우선 갑과 율은 법과 술을 강조하지 않음. 법과 술을 강조하는 것은 한비자임. 그런데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함. 변화시키지 않음. 혹은 (2) 한 번에 갑, 율, 병 모두 본성 변화를 꾀하지 않음으로 해서 풀 수도 있음.
 135) ⑤
 ✎ Zola Guide ⑥가 바나나 선지임. 패권주의는 '힘 또는 무력으로 억압하는 정치'를 말함. But 갑, 율, 병 사상이 누가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공부해둘 것. 같은 노자(도가), 율은 목자, 병은 맹자(유가)임.
 136) ④

3%	12%	2%	79%	4%
----	-----	----	-----	----

☞ Zola Guide 같은 도가, 병은 유가 정도인 것만 알면 됨. 단, 을은 한비자임을 알아야 함. 참고로 같은 노자, 병은 맹자임.

- 137) 정
- 138) ③
- 139) ②
- 140) 나, 르
- 141) ①
- 142) 가, 다, 르
- 143) ②
- 144) ②
- ☞ Zola Guide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비교하는 문제임. 을의 사상가(로크)의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님.
- 145) ①
- ☞ Zola Guide 갑(유가, 공자), 을(법가, 한비자)임.
- 146) ③
- 147) 가, 다, 르
- ☞ Zola Guide 목가의 결애, 교리에 대한 내용임. 모르면 님이 공부할 안 한 거임. 목가가 지엽이 아님.
- 148) ③
- 149) (3)√. (4)√
- 150) 가, 나
- 151) ③
- ☞ Zola Guide 드워킨이라는 사상가임. 알아두어야 함. 단, 처음 나올 때는 거의 독해형일 가능성 높음.
- 152) ②
- 153) ④
- 154) ④
- 155) 가, 르
- 156) 가, 르
- 157) ⑤
- 158) 1, 2, 3, 5
- ☞ Zola Guide 교과서에 나오는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식화하였는지(암기 또는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 159) ①
- 160) 나, 르
- 161) 다
- 162) 을
- ☞ Zola Guide 네 번째 관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감'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국어는 갖추어야 함. 국어 비문학-문장 공부를 수능 전까지 열심히 할 것.
- 163) 나, 다
- 164) 가, 나, 다
- 165) ①
- 166) 가, 나
- 167) 다, 르
- 168) ②
- 169) ①
- 170) 나, 르
- 171) ③
- 172) ⑤
- 173) ①, ④
- 174) ③, ④, ⑤
- 175) 가, 나, 다
- 176) 가, 나, 르
- 177) 나, 다, 르
- 178) 가, 다
- 179) 다, 르
- 180) ④
- 181) ⑤
- 182) 가, 나, 르, 모

- 183) 가, 다, 르
- 184) ②
- 185) ①
- ☞ Zola Guide 을 사상가를 테일러 혹은 생명 중심주의로 파악한 바나나들은 분명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 그래서 니가 기껏 공부하고는 바나나가 되는 거라고!
- 186) ④
- 187) ④
- 188) ③
- ☞ Zola Guide 정확히 하자면 '삶의 주체' 혹은 '삶의 주체인 동물'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야 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건의 '수단'과 '자원'에 대한 표현을 구분하고 있는 것임.
- 189) ⑤
- ☞ Zola Guide 정답은 바나나임. 오답을 잘 확인할 것.
- 190) 가, 나, 르
- 191) ③
- 192) ③
- ☞ Zola Guide ③이 바나나 선지임. 나머지 선지를 잘 확인해 둘 것. 심층 생태주의임.
- 193) 나, 다, 르
- 194) 가, 다
- 195) ⑤
- 196) 가, 나
- ☞ Zola Guide ebs에 처음 등장한 '칸트'의 예술관 문제임.
- 197) ②
- 198) ④
- 199) ①
- 200) 나, 다, 르
- 201) 가, 나, 르
- 202) 가, 나
- 203) ⑤
- 204)

입장	너
거주함은 사물의 성장을 돌보고 보살핌을 의미한다.	V
거주함의 본래적 환경은 집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사방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존재이다.	V
현대인들은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V

- 205) 가, 나, 다
- 206) 나, 르
- 207) ②
- 208) ③
- 209) 순서대로 ④, ②
- 210) ⑤
- 211) 가, 나
- 212) 나, 다
- 213) ⑤
- 214) ⑤
- 215) 나, 다
- 216) ④
- ☞ Zola Guide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제시문의 논거(논리) 파악이 중요한 문제임. 탐구로 보자면 나름 고난도 독해일 듯
- 217) 1, 2, 3, 5
- 218) 나, 르
- 219) ①
- 220) 을
- 221) ②
- 222) 가, 나
- ☞ Zola Guide ⇨하면 안 됨!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ok. 유일신을 긍정하는 입장이나 부정하는 입장 모두 인정해줘야 함.
- 223) 가, 나, 다

224) 나, 르

225) ㉠

226) 가, 다

227) 가, 나, 르

☞ Zola Guide 같은 하버마스, 울은 칸트임.

228) 나, 다

229) ㉠

☞ Zola Guide 주제 번호 1-2 동양 윤리 지식이 필요함.

230) ㉢

☞ Zola Guide ㉡가 답이 안 되는 이유를 사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함. 주제 번호 1-2 동양 윤리 지식 활용 할 것.

231) ㉣

232) 갑

233) 가, 나, 르

234) ㉠

235) ㉠

236) ㉠

237) 나, 다, 르

238) 가, 다

239) 3, 4, 6

240) ㉢

241) ㉠, ㉢, ㉣

242) ㉠

243) 가, 나

244) 가, 다, 르

245) 가, 나, 르

246) ㉣

☞ Zola Guide 선지 ㉠ 고른 B나나들, 제시문 다시 보라!

247) ㉣

248) ㉠

249) 가, 르

250) 가, 나, 르

251) ㉠

252) ㉠

253) 가, 다, 르

254) 병

255) 다, 르

256) ㉤